

한글화

2010.09 Vol. 218 September





227색

지역문화의 향연

2010 전국문화원의 날

일시 _ 2010. 10. 8 (금)

장소 _ 동작문화복지센터 대강당

주최 |



한국문화재단

주관 | 지방문화원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Contents

2010. 09 Vol. 218 September

02	연합회 소식	러브 인 아시아
06		2010 지역문화 경영과정
10		학습과 실험은 즐겁다
12	문화원 기고	문화를 통한 소통의 중심지
14	한지봉 한술밥	경북 성주문화원
20	문화원을 잡아라	지방문화원의 역할과 비전
26	우리안의 세계	나는 서울로 영어연수 간다
28	책 수집가 안정웅의 오거지서 (五車之書)	인간 내면의 율림세계 - 옥중편지를 읽다(1)
34	인식의 전환 씬,그 따옴표	2010년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38		한·미 어린이 씬머스쿨 2주간의 프로그램 성료
42		죽음, 그것 또한 '삶의 한 과정' 이고 '쉬는 것'
46	한국의 예절	공통예절
56	연합회 레이더	문화원 이모저모
59		우리문화 소식
60		원장 동정



등록번호 서울라 12184 | 발행 한국문화원연합회 | 주소 우)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상우빌딩 1202호 | 홈페이지 www.kcof.or.kr | 전화 02)704-2311 ~3 | 팩스 02)704-2377 | 발행 편집인 최종수 | 편집위원 박호환(대산문화재단 사무국장) 김중영(주서구문화원장) 박덕규(민국대 교수, 한국문화유산문화원장) | 편집장 문신희 | 편집 디자인 디자인 인크 02)332-7924 | 인쇄 태양 세인프 02)2268-2111 | 표지 사진 원조 평택문화원

원고는 편집부와 연택 후 우편이나 e-male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원고 접수 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e-male로 보낼 경우 300dpi 이상 해상도로 사진을 받은 후 보내 주십시오.) 우리문화에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우리문화'를 보내드리거나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게재된 기사 및 이미지는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인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책자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정가 3,000원

러브 인 아시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한

'2010 다문화 국악뮤지컬 <러브인아시아> 지역순회공연' 이

지방문화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7월 30일(금) 춘천을 시작으로

8월 22일(일) 부산까지 10개 지역에서 진행되었다.

한국에 시집 온 아시아 지역의 며느리들과 전통을 고수하는 시어머니와의
갈등과 화해를 그린 이번 공연에는

특히 실제 카자흐스탄 출신의 결혼 이주여성 '마하노바 아셀' 이 출연,
전문 배우로서 이주여성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또한 '찾아가는 다문화공연'이라는 형식으로 수준 높은 국악 뮤지컬의
지역 보급뿐만 아니라 아시아 문화에 대한 지역민의 이해를 돕는
공연으로 크게 호평을 받았다.

공연은 함께 소통하는 하나의 언어

"감언~"

'감온(고맙다)' 이라고 적힌 설문지를 내미는 아이를 안은
베트남 이주여성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있었다.

공연장을 찢렁찌렁하게 울리던 베트남 노래가 좋고 무
대 위의 이야기가 내이야기 같아서 좋았다고, 그래서
고맙다며 약간 어눌한 한국말로 설명했다.

이주여성 배우로 무대에 올랐던 카작댁 '아셀' 은 이주
여성들에 둘러싸여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들에게 '아
셀' 은 '김태희' 보다 더 대단한 스타였다.

"우리 반에도 다문화가정 친구들이 있어요, 앞으로 그 친
구들과 더 사이좋게 놀 거예요"라고 개구지게 웃는 초등
학생, "참 좋네,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봐야 하는데.."라며
조금 쑥스러운 듯 웃던 나이 지긋한 어르신, 늦게 도착해 중
간부터 공연을 본 것이 아쉬워 앞부분을 보려고 다음 공연지





VE IN ASIA



역을 다시 찾은 아주머님도 있었고 무료공연이란 말에 조금 우습게 봤다가 공연내용이나 배우들의 연기, 악사들의 연주에 반해 다음에 또 언제 공연하러 오냐고 묻는 관객들도 있었다.

함께 만든 화합의 축제

다른 해 보다 더위가 기승을 부린 2010년 여름, 배우 20명, 악사 10명, 스태프 45명이 참여해 10개 지역에서 4,940여명의 관객들을 웃기고 울렸던 이번 공연의 숨은 공로자는 바로 지역의 협력기관과 단체들이었다.

공연장 대관은 물론이고 관객 모집, 지역홍보, 어린이 놀이방과 현장 운영 등을 해당 지역의 협력기관과 단체가 맡아 진행했는데 특히 지방문화원(경주·부안·김해문화원, 한국문화원연합회 부산시지회)에서는 지역기업의 후원을 받아 관객들의 선물을 준비하거나 다문화 동화책 작가의 사인회를 병행하는 등 성공적인 공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국내의 인사들의 초청을 병행한 영등포 공연에는 전 총리이자 사회통합위원장인 고건위원장, Kamalprasadkoirala 네팔대

사, Sylvia M. Marasigan 필리핀 영사, 최중수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박정자 영등포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공연을 통한 다문화 사회 정착에 뜻을 같이 했다.





VE IN ASIA



2010 지역문화경영과정을 통해 문화원의 비전을 보다.



연합회는 지난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용인 현대인재개발원에서 지역문화경영과정 중급과 고급과정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중급(기획력 Level up 역량강화), 고급(창조력 Power up 역량강화)로 구성되었으며 참여한 수강생 49명 모두 수료하였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내실 있는 교육과정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문화원 직원들의 전문역량강화 및 정보공유를 위한 장으로서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출석, 팀워크, 참여도, 워크숍결과물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 우수팀 2팀과 우수자 5명, 총 12명이 선발되었다. 이들은 내년 해외연수 기회가 제공된다.

우수팀	중급(2조 2팀)	유영섭(강화), 김경량(유성), 김진미(문화원연합회), 김민정(광주시지회)
	고급(3조 2팀)	강임원(동대문), 고성환(문경), 김지은(나주)
우수자	중급과정	박세진(예산), 박영미(연수)
	고급과정	박성복(평택), 허모영(김해), 이나라(광주동구)





문화체험 / 연극수업

강사 및 수강생 참여 소감

김공숙(KBS 방송작가/강사)

강연의뢰가 왔을 때 지역 문화 발전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계신 전국 문화원의 간부와 실무자들께서 오신다는데, 어떻게 나만의 차별화된 스토리텔링 강연을 해야 할까 다소 부담이 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막상 수강생들을 보니, 눈빛이 초롱초롱들 하신게 말하는 사람이 저절로 힘이 났다. 어떤 공부라도 열의 있는 만큼 배워간다고, 나름 열심히 준비한 사례를 소개할 때 마다 고개를 끄덕이시곤 해서 강의자와 수강생 간의 보이지 않는 생동감 있는 의사소통이 되고 있음이 느껴졌다.

방송하면서 겪은 인물 스토리텔링 사례를 소개했는데, 쉬는 시간에 따로 방송에서 주인공 선정 과정을 질문해 오신 나이 지긋한 분이 있어 성의껏 대답해 드렸다. 이번 강의를 통해 나 또한 지방문화원에 대해 이해가 넓어졌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다시 즐거운 만남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유영섭(강화문화원 사무국장)

“2010지역문화 경영과정 교육안내”에 관하여 결재가 올라왔

다. 지난 해 초급과정을 마쳤던 때가 생각났다!!!! 그래도 문화원 일을 하면서 답답했던 일들을 지역문화경영과정교육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터라 “가야지.....!!!!!!” 하는 생각 뿐이었다.

설레임으로 용인으로 향하는 시간은 행복했고 “주민 참여형 문화예술프로그램 기획”에 대하여 수강신청을 하고 중급 2조2팀에 배정됐다.

팀원들의 열정에 다시 한 번 놀랐고 나 또한 그 열정에 동참하기로 했다. 모든 교육일정들이 내게는 정말 필요했던 시간들이었다. 같이 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애쓰신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문화원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임원(동대문문화원 사무국장)

먼저 좋은 성적이 나오도록 협조해 준 문경문화원 고성환국장, 그리고 나주문화원의 김지은씨께 감사드리며, 상이나 순위를 떠나 문화

원이 앞으로 어떤 정체성과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야할 지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미래형 문화원의 창조!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시 한 번 파이팅!

이나라(광주동구문화원 사무국장)

한편의 연극을 보는 것 같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대영 원장의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트위터 팔로우의 지경을 넓혀준 전수환 교수의 시대전략 까지 4일간 우리가 소화해 낸 고급과정은 통상적으로 6일정도가 소요될 법한 교육과정을 압축해 낸 고도의 창조력을 요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이었다.

나 자신을 비롯해 여기에 함께한 20명의 고급과정 수료생에게 지면으로나마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낸다.

첫 고급과정인 만큼 여러 시행착오도 있을 줄 안다. 해를 거듭할 수록 토론하는 시간이 더욱 확대되길 바라며, 교육과정의 결과물이 문화원 현안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탁상공론이나 토론을 위한 토론이 아니라 선순환적 구조에서 창발적인 구조로 문화원 사업 전반에 연차적인 밑거름이 되길 두 손 모아본다.

고급과정 1기 파이팅!! 전국문화원 파이팅!!!

박세진(예산문화원 사무국장)

2010지역문화경영과정은 내 개인적으로 떠날 때의 약간 느슨한 마음을 슬쩍 다잡아 놓는 계기가 되었다.

서로 토론하고 최종 기획서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은 종국적으로는 해당 지역 문화원 지역민들의 넓고 깊은 문화향유권 창조를 위한 보기 좋은 욕심이었으리라 확신하며 향후 참여하지 못한 문화원들도 꼭 기회를 만들어 같이 행동하고 같이 사고해보는 경험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구성에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정숙 교수님과 새벽 잠 떨쳐가며 기획안 만들던 우리 2조2팀(완도,군위,서산,청원)팀원들께 글로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학습과 실험은 즐겁다

지역문화 경영과정 ‘기획력 레벨 업 역량 강화 참여후기

학습과 실험은 즐겁다. 잠자고 있던 오감이 깨어나고, 수직적 명령과 규범에 젖어가던 사고 체계에 신선한 개혁이 일어난다.

이 새로운 교육은 문화원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선순환적 자극이 되리라. 즉 향토사 발굴, 참여, 소통, 기획, 창작과 체험, 축제, 사회통합 등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227개 문화원의 중심축인 원장과 국장 등의 기획력과 창조력을 제고하기 위한 ‘2010 지역문화경영과정’이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용인의 현대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되었다.

공간 이동이 있는 학습과 실험은

삶의 새로운 국면과 만난다는 측면에서 즐거운 연출이지만,

일상을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모험이기도 하다.

이 모험의 공간이 강연, 발표, 평가, 체험, 웃음, 피드백, 팀워크, 기획력,

창조력, 협력, 지역문화 상상 등 짝 찬 내용으로 구성되어,

문화원 주력진의 역량을 말 그대로 레벨 업 시키고 있었다.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프로그램이다.

2006년부터 시작된 이 연수프로그램은 2010년에 이르러 체계와 내용면에서 완성도가 아주 높아 졌다.

지역문화경영과정은 '문화원을 통한 지역 문화거울 창조'라는 특별초청강연에서 시작해서 다양한 강의와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기획을 위한 워크숍과 컨설팅, 그리고 '뉴미디어 시대의 문화경영전략'이라는 시대전략특강으로 마무리되었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경쟁력이 구비된 프로그램이다.

공간 이동이 있는 학습과 실험은 삶의 새로운 국면과 만난다는 측면에서 즐거운 연출이지만, 일상을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모험이기도 하다.

이 모험의 공간이 강연, 발표, 평가, 체험, 웃음, 피드백, 팀워크, 기획력, 창조력, 협력, 지역문화 상상 등 짝 찬 내용으로 구성되어, 문화원 주력진의 역량을 말 그대로 레벨 업 시키고 있었다.

소속기관에 대한 일체감과 문화 활동의 활성화라고 하는 동일한 사명감으로 충만한 집단

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강의와 체험프로그램의 몰입도가 높았다.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 수준에 비례하여 교육의 효율성도 동반 상승되었으며, 특히 우수 팀에 대한 해외연수 인센티브 지원은 참여자들의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여 흥미진진하였다.

문화원이 새로운 문화공동체 전략을 수립하고, 생활문화공동체를 복원하는 거점이 되어야 한다는 소명의식과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소셜 미디어 활용방안 수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도 꼭 짚어 주었다.

가장 핵심적인 프로그램이었던 기획력과 창조력 제고를 위한 팀별 워크숍 프로그램은 일방적인 강의나 소개 방식이 아니었다.

참여자들이 직접 팀원이 되어,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프로그램 주제를 상상하고, 기획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수립하여, 기획안을 프리젠테이션 자료로 만들어 발표하는 이른바 참여자 주체형 워크숍이었다.

컨설턴트들은 다만 이들을 격려하고 진작시키는 긍정적 친구이자 보조자였다. 이 발표를 듣고 참여자들 스스로 평가하게 하는 평가 시스템을 실천한 것은 참여자 주체형 프로그램의 백미였다.

역사성과 문화적 활동성을 겸비한 각 지역 문화원의 창조적인 미래를 지향하는 경영의 전문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본 지역문화경영과정의 2011년 프로그램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정 정 숙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원기고

문화를 통한 소통의 중심지

‘찾아가는 문화행사’가 좀 더 다채로운 기획을 통해 주민들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게 된다면, 문화원에 많은 재능있는 예술가들이 모여들고 예술과 문화의 명소로 거듭나는 날이 곧 오리라 기대

작년 연말에 ‘세대소통’이라는 주제로 문화원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 남구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초, 중, 고등학생들 중 오디션을 통해 12명으로 퓨전밴드를 결성하고 50대 구청공무원들과 함께 무대를 가졌는데 공연을 보신 분들의 반응이 참 좋았다고 기억 합니다. 3년 전 일본을 여행하던 중에 길거리 공연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나이가 많은 기타리스트와 학생들이 함께 공연 중이었습니다. 세대가 다른 이들이 음악으로 교감을 나누는, 보기만 해도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기타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모습, 그들간의 나이 차이나 세대 차이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부산남구문화원은 이제 3년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경험한 ‘세대소통’ 콘서트가 어설프게나마 던지고자 했던 메시지가 우리 문화원이, 혹은 우리 문화가 지향해야 할 꼭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갈등과 무관심 때문에 상처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화를 통해 갈등이 완화될 수 있다면, 무관심이 다소 해소될 수 있다면 문화는 이미 순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문화의 역할을 비타민에 비유하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어들 본 적이 있습니다. 비타민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처럼 직접 열량을 내는 영양소는 아니지만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피로를 풀어주며 질병과 노화를 예방해 주는 일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문화는 생계보다는 부차적인 듯 하지만 인간이 정신적으로 노화되거나



경직되는 걸 막아주고 창조적 윤회제가 돼줍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섭취하기보다는 매일 매일 필요한 양을 꾸준히 섭취해야 하는 것도 문화와 비타민의 공통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문화원들이 세상에 제공하는 삶의 비타민, 그것이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향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산남구문화원은 30여 과정의 문화강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정서 함양과 예술 입문을 위해 노력 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어르신문화학교를 2년째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30여분의 이사님들과 회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남구 전역에 어떻게 하면 문화의 향기를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끝에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작년에 '시와 사진과의 만남전'이라는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 문화강좌 중 '시창작반'과 '사진반' 회원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시화로 제작, 일정 기간 전시하고 공연과 시낭송회를 가졌던 문화 행사였습니다. 이 행사

를 계기로 '찾아가는 문화행사'에 대한 이야기가 개진되었고 올해 6·25 60주년 맞이하여 기념 행사를 유엔기념공원에서 두 번째 찾아가는 문화행사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찾아가는 문화행사는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늦여름밤에 지역주민들을 초대하여 풍요로운 음악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문화의 향기를 곳곳에 빠르게 전파하는 방법은 작지만 알찬 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해가는 방법이 가장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유명한 가수들이 대거 참여하는 1회성 행사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기반을 둔 아마추어 뮤지션을 개발하고 그들을 공연 자원으로 한 참신한 기획을 통해 지역주민과 한 달에 한 번, 혹은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 그렇게 소통해 가는 작업을 우리 문화원에서 해나갈 것입니다.

늦깎이 문화원이지만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가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지고 좋은 이미지를 심을 수 있게 된다면, '찾아가는 문화행사'가 좀 더 다채로운 기획을 통해 주민들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게 된다면, 그리하여 문화원에 많은 재능있는 예술가들이 모여들고 예술과 문화의 명소로 거듭나는 날이 곧 오리라 기대됩니다.

글 서두에 이야기했던 우리 사회의 '소통'을 문화원이 기능을 다할 수 있을 때 문화의 꽃이 만개하리라 생각합니다.



성재영 부산남구문화원장

경북 성주(星州) 문화원

경북 성주는 가야산의 높은 기슭이 뻗어나고, 영남문화의 젖줄 낙동강은 성주를 가로질러 흘러 성주를 황금의 땅으로 만들었다.

또 성주참외는 성주의 보배로 빛난다. 성주하면 참외이고 참외하면 성주를 떠올린다. 별빛의 고을 성주,

참외맛 같은 달콤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성주문화원을 가 본다.

성주는 성산가야의 옛 도읍지로 신라를 거쳐 고려 현종 때에는 1군 14현을 거느린 큰 고을이기도 했고, 조선시대에는

진주, 경주, 상주와 더불어 영남 4대 거읍(巨邑)으로 일컬어졌다.

성주 도씨, 성산 여씨, 성산 배씨, 경산 이씨, 광평 이씨, 성산 이씨, 성주 이씨, 벽진 이씨 등 뿌리 깊은 가문의 집성촌이 형성되었고,

도은 이승인, <제왕운기>를 쓴 이승휴, 충성으로 일관한 이조년, 고려개국공신 배극렴, 독립운동가 심산 김창숙 선생 등

성주에서 수많은 선비들이 배출되었고, 이 선비정신은 오늘날 성주문화를 이끄는 사람들의 자긍심이 된다.





아름다운 단독원사 건립

경북 성주문화원(원장 배춘석)은 1968년 5월 24일 설립되었고, 1971년 첫 자체원사를 건립하였고, 1999년 전국 모범문화원으로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아 2003년에 새 원사를 건립하였다.

이제 성주문화원은 금년 3월에 세 번 째 새로운 원사를 지어 성주군의 명실상부한 문화의 중심으로 성장했다.

3월 13일 개최된 준공식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인기 국회의원, 이창우 군수 등 각 기관단체장들과 문화원 회원, 재경성주향우회 및 지역주민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배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통문화 계승과 함께 신문화를 창조함으로써 지역문화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고, 지역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계속해서 김 도지사는 “본 준공식에 참석함으로써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하며 아울러 “문화원이 건립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도움을 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성주 참외와 문화

전국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성주 참외. 단순한 참외가 전국적인 명성을 갖게 된 데에는 문화의 맛이 배였기 때문이다. 배춘석 원장은 말한다. “성주가 참외의 고장이예요. 참외 농사는 농한기가 없어요. 전부 문화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주군 내 참외 소득이 일년에 얼마나 나오는가 하면 3,500억, 한 농가에 한 집에서 한 육백그루 농사짓습니다. 여기 인구가 45,000명 정도 됩니다. 전국에서 농사 소득 최고예요. 옛날엔 선비의 고장이었는데, 지금은 참외의 고장으로 바뀌어지고 속 들어갔어요.”

성주의 문화에 참외 맛 같은 달콤함이 가미되는 계기가 있었다. 물론, 참외 농사를 짓는 것처럼 문화 활동 또한 농사짓는 마음과 같을 것이다. 1998년, 배원장이 군수와 함께 서울의 성주군 향우회에 참석해서 인사말을 하면서 “머리 좋고 실력 있고 뭐 잘난 사람들 서울 가고, 고향에는 오도 가도 못한 사람들밖에 없다. 농사만 짓고 거기서 무슨 문화를 찾겠냐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성주문화를 안 살리면 성주문화는 살길이 없다.”고 하소연한 것이 ‘성주문화사업후원회’가 발족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2007년 8월 13일에 출범한 성주문화사업후원회는 초대회

장에 국회의원 신동욱씨, 부회장에는 이상희, 이윤기, 한인규 등 세 사람이 맡았고, 서울에 있는 기업인들이 참여해서 연간 이천만원 정도 후원을 하는 조직으로 발전했고, 후원회원들은 문화원의 특별회원으로 예우해서 그 특별회원이 182명에 이른다. 원사 준공식, 조경 나무 식수 등이 후원회에서 제공한 것이라 한다.

‘문화사업후원회’의 목적은 성주에 있는 문화유적을 발굴·보존이라는 목적으로 조직했는데, 여러 회원들을 고향의 문화유적탐방을 시켜서 고향에 대한 애향심과 문화에 대한 인식을 재조명시켜 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 문화탐방을 여러 차례 개최하고, 실질적으로 문화에 대한 도움을 줘야한다고 생각하여, 문화교실 운영에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고전악기 구입, 신설강좌의 재정지원, 성주 문화 홍보책자발간 등 실질적인 지원과 더불어 정신적 지원, 국고지원, 도에서의 지원 등을 인맥을 통해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고 있다.

‘문화사업후원회’의 목적은

성주에 있는 문화유적을 발굴·보존이라는

목적으로 조직했는데,

여러 회원들을 고향의 문화유적 탐방을 시켜서

고향에 대한 애향심과 문화에 대한 인식을

재조명시켜 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

문화탐방을 여러 차례 개최하고,

실질적으로 문화에 대한 도움을 줘야한다고 생각하여,

문화교실 운영에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다채로운 문화제

성주에는 각종 문화제가 69개에 이른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우리 문화의 달 문화행사를 독자적으로 할 예정이다. 성주문화원이 주관하는 태실 봉안행사는 경북도와 서울시가 후원해서 서울에서부터 행사를 가진다. 세종대왕자태실 태 봉안의식은은 경북궁 교태전과 강녕전, 성주군 성주 성 밖 숲에서 재현한다.

태 봉안의식은 경북궁 교태전에서 왕자의 태를 씻어 태항아리에 안치하는 의식을 시작으로 강녕전에서 국왕이 태봉지(장소)를 낙점하고, 안태사(장태의식을 총괄하던 관리)를 임명해 교지를 내리는 의식과 태항을 누자(가마)에 안치하는 의식, 경북궁을 출발해 태봉지인 경북 성주군까지 가는 봉출의식 순으로 진행된다.

성주 성 밖 숲에서 거행되는 영접의식은 안태사 행차의식, 경상도 관찰사의 안태사 행렬 영접의식, 장태지에 도착하여 봉안하는 봉안의식 등으로 진행된다.

장태의식은 아이가 태어나면 태를 정성껏 씻어 땅에 묻는

풍습으로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한국만의 독특한 의례이다.

생명의 신비를 찾아가는 별빛 기행

성주군의 문화유적 가운데 특징 있는 것이 조선시대 세종대왕의 왕자 태실이다.

국가사적 제444호인 세종대왕자태실은 세종의 18왕자 중 큰이들 문종을 제외한 17왕자와 원손(元孫)이었던 단종의 태가 안치돼 있는 곳이다.

생명의 줄인 태줄을 봉안한 태실은 생명의 신비를 품고 있는 문화유산이다. 성주문화원에서는 '생명의 신비를 찾아가는 별빛기행'이 성주군 월항면 인촌리 세종대왕자태실과 선석사 일원에서 개최한다.

연중 10월까지 총5회에 걸쳐 마련된 별빛 기행은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문화해설사의 안내로 세종대왕자태실과 선석사를 둘러보는 체험 여행으로 진행된다. 전통문화 체험과 문화 공연, 태실 돌기, 별자리 탐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램도 준비돼 있다.

성주문화원 박기열 사무국장은 “별빛 기행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의 신비를 느끼며 전통문화와 예술을 가족, 연인과 함께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문화 만들기

이제 81세의 배춘석 원장은 “아무데서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선비들의 고장인 이곳이라 가능하다”고 힘주어 말한다. 성주군 관내에 기관장이 외부에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배원장은 외부사람들이 이곳 성주 기관장을 오면 주인 의식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하고, 일단 성주 문화 탐방을 시킨다. 그리고 “직원들이 마음이 든든해야 일을 잘한다.”며, 직원들에게 “살림을 잘 살아라. 필요한건 내가 다 해주겠다. 지원은 책임지겠다.



돈은 내가 벌 테니 돈 잘 써라.”하면서 지원해준다. 신비고 장다운 문화를 이어나가는 것이 배춘석 원장이 지향하는 문화비전이다.

성주문화사업후원회 이하영 회장

후원회 이하영 회장을 만났다. 이회장은 “우리 성주가 옛날에 큰 위세를 가진 곳이었어요. 근데 현재는 인구가 5만 밖에 안되고 면적도 좁아졌다. 그러나 인제는 많이 배출된 고장입니다. 독립운동가, 대학총장들도 여럿 나오시고, 옛날에 학자들도 성주에서 많이 나오셨습니다. 안동과 서로 누가 일등이나 하고 겨루고 했다.”며 성주인으로서의 강한 자긍심을 품고 있다.

이하영 회장은 성주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1학년 때인 17살에 6.25전쟁이 터져 자원 입대하여 12연대에 배속된다. 이 때문에 이회장은 고등학교 졸업장을 못 받고, 재작년에 명

예졸업장을 제1호로 받았다.

‘고향이 없는 이북사람들 생각하면 고향이 있는 우리가 참 행복하다.’는 생각으로 애향심과 문화에 대한 투철한 관심으로 후원회장을 맡아 모임을 이끌고 있다.

후원회는 앞으로 큰 사업 하나를 계획하고 있다. 세종대왕 21년(1439) 때 사고(史庫)를 네 개 만들었는데 그 중 하나가 성주사고이다.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성주사고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후원회의 미래에 대해 이하영 회장은 말한다. “우리는 주체가 되는 것보다는 후원이 되어서 성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하는데 첫째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 후원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노력을 한다.”

지방문화원의 역할과 비전

문화는 삶의 총체적 행위입니다.
그러기에 그 어느 누구든 간에
문화를 생산하고 향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특히, 농촌사람들은
그 문화 소외의 극점에 처해 있습니다.
1년 열두 달 동안에 공연 한번 제대로 못 보고,
하고 싶은 여러 문화예술 행위도
경제적 여건이나 힘든 노동생활 때문에
엄두를 못 냅니다.

담양문화원은 1950년 유엔회관으로 출범하여 1965년 담양문화원으로 정식 설립인가를 받은 연륜이 깊은 문화원입니다. 그 연륜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보조금 몇 푼을 지원 받아 정부정책의 홍보나 군당국이 필요로 하는 사업 정도를 집행하는 관변단체에 불과했습니다.

가령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정부의 산아제한정책을 홍보하러 다니거나 군청 직원들과 함께 마을에 계몽영화를 상영하러 다니는 일, 그리고 팜플릿 형태의 기관지 정도를 발간하는 게 고작이었던 셈입니다. 물론 2000년대 들어와서야 정부가 문화의 세기를 주창하며 문화를 산업화 하고자 하는 대대적인 정책을 펴면서부터 지방문화원에 대한 인식도 약간은 달라졌지만 재정적 지원은 따르지 않아서 문화원 살림은 별반 나아지진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2006년 7월에 사무국장으로 부임한 담양문화원도 그해 사업 및 재정 결산을 본 결과, 사무국장 연봉과 간사 연구원비를 포함, 총 7,500만 원 정도의 결산을 낸 이주

미약한 문화원이었습니다. 청소년 시서화 백일장과 회원 문화탐방 정도가 사업의 전부였습니다.

문화는 삶의 총체적 행위입니다. 그러기에 그 어느 누구든 간에 문화를 생산하고 향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특히 농촌사람들은 그 문화 소외의 극점에 처해 있습니다. 1년 열두 달 동안에 공연 한번 제대로 못 보고, 하고 싶은 여러 문화예술 행위도 경제적 여건이나 힘든 노동생활 때문에 엄두를 못 냅니다.

그러기에 지역문화의 메카라 할 수 있는 지방문화원이 할 일은 참으로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농촌의 문화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최우선 과제로 놓여 있는 것입니다.

행정당국은 지역의 문화소외를 해소해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보다는 1년에 단 며칠 동안 3류 가수들이나 무더기로 초청하는 축제나 벌여 자치단체장들의 입지나 다지려는 비문화적인 행위를 문화라는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에 대한 치열한 현실인식 아래 문화원 사무국장으로서 문화원 회원 상대의 사업보다는 군민 전체를 상대로 한 사업을 하고자 노력 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 결산을 약 4억 정도까지 낼 정도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더구나 14억 정도의 국비와 군비를 확보해 문화원 공연장까지 현재 신축하고 있어 9월이면 완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공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문화원의 위상을 한층 높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단적인 예로 담양 문화원에선 1년에 70여 차례의 공연을 하는데, 그중 죽녹원 주말문화상설 공연 48회, 찾아가는 문화 활동의 일환으로 각 면단위에서 실시하는 공연 4회, 노인시설이나 장애인시설을 찾아가는 십여 차례의 봉사공연을 빼고라도 대형 공연을 여러 번 합니다.

큰 공연 때마다 문화회관 대공연장이 꽉꽉 차는데, 관람한 사람들마다 문화원에서 하는 공연이 가장 수준 높고 볼만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사실 시골에서 하는 공연이나 행사는 누가 주최하든지 관객이 동원되면서도 자리를 다 메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화원 공연은 항상 자리를 다 채우고도 남을 정도이니 문화원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처럼 담양문화원의 존재의의와 위상을 높인 데에는 제 나름대로 몇 가지 문화원 운영 방침을 세웠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의 첫째는 지역현실을 감안한 적절하고 신선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행정당국을 상대로 사업비를 확보하려는 치열한 노력을 했습니다.

문화에 있어서 적절하고 신선한 사업 아이템 없이 행정당국을 설득해내기는 무척 힘이 듭니다. 지역민들의 문화향수와 생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이라는 확증을 행정당국에 심어주는 것은 사업비를 따내는 데 필수적 조건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 인맥의 활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업의 목적, 취지, 기대효과까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핵심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저는 문화원 운영을 지역문화운동 차원에서 해왔습니다.

문화원 들어오기 전엔 저는 글을 써서 나름대로 먹고 살았습니다. 문화원을 직장으로 생각하고 들어왔다면 연봉 2천만 원이라는 돈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문화원의 업무상 운행한 제 차량의 기름 값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고, 일을 통해 알게 된 수많은 사람들의 경조사에 아니 갈 수 없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하기 전에 일체 빛이 없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채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4년 동안 이 일을 계속해온 것은 고향 사람들의 문화 소외 극복과 문화향수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나름대로는 지역문화 파수꾼이자 지역문화운동가로서의 의식을 갖고 해왔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빚어지는 터무니없는 오해와 행정당국의 문화에 대한 홀대와의 다툼도 감수했습니다.

세 번째, 어떤 문화원이나 다 그렇겠지만 사업비를 확보하면 사업비 전액을 사업에만 투입했습니다.

군민, 혹은 국민의 혈세를 받았기에 이를 한 톨도 허비해선 안 된다는 제 신념이 결국 사업을 튼튼하게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설령 문화원의 전기세가 부족하고 복사용지 살 돈이 없어서 찢절 댈지라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사업비를 일부라도 다른 용도로 전용시켜 사용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원 외에 여러 문화예술단체가 있지만 그들은 시설단체인 만큼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을 수 없기에 아무래도 사업의 충실도 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담양문화원의 성공적 모델로 종종 거론되는 죽녹원 주말문화상설공연은, 보조금 2천5백만으로 연중 20회 정도의 토요상설공연으로 '담양예술인협회'가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한 공연 당 125만 원 정도의 공연비를 쓰면서 담양 밖의 예술인을 주로 초청하여 시행하던 공연이었지요. 하지만 군에서 같은 예산으로 주말, 이틀을 공연해달라고 하자

예술인협회에서 난색을 표하는 바람에 그 공연을 우리 문화원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떠맡게 됐습니다.

결국 문화원은 2천5백만원으로 연중 48회 공연을 하게 됐는데, 한 공연당 무조건 50만원을 주고 거기에 참여하는 공연팀도 지역 예술팀과 지역 밖의 예술인들을 5대5의 비율로 참여시켜 지역예술인들의 원성도 없었습니다. 물론 외지 예술인들은 제가 원래 글을 쓰는 문화에 종사하는 사람이었기에 여러 인맥을 동원해 공연성사를 시키느라 사람 빚을 많이 지게 되었지요. 이런 몇 가지 기준을 두고 문화원을 운영해왔기에 오늘날 어느 정도 문화원 위상을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담양문화원이 하고 있는 사업 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하면서, 농촌문화원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향토문화총서 발간 사업입니다.

담양은 정자문화의 1번지이자 가사문학의 산실로 일컬어지는데, 제가 부임할 때 누정집이나 가사 해제집 하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담양의 누정집을 내는 데 착수했습니다. 지금이 없는데도 경성비로 쓰는 향토문화사업비를 투입해 전남대교수들과 함께 담양의 누정을 총체적으로 조사하고, 사진을 촬영하고, 그것을 연구하여 2년에 걸쳐 〈담양의 누정 기행〉이라는 책을 냈지요.

전통문화에 대한 현대적 해석을 통해 그것들에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기행문 형태로 책을 냈습니다. 그것이 크게 히트를 쳐서 재판을 찍었고, 지금도 이

책은 구입문의가 곧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성산별곡, 사미인곡 등 국문학사의 중요한 가사작품 18편을 수록한 담양의 가사문학집을 기획하여 냈습니다. 누정과 쌍둥이 역할을 하는 〈담양의 가사 기행〉이라는 책이지요.

이 예산은 마침 박재영 전남도 부지사가 담양 출신이어서 사업계획안을 내고 그 필요성을 설득했는데, 다행히 3천만원을 배정해 주어 기행 형태의 묵직한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워낙 기획이 신산하다고 했던 때 문인지, 책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벌써 책이 다 떨어졌습니다. 또 하나 면양정가단의 창시자요 송강 정철문학의 본류라고 하는 송순 선생의 정자인 면양정에서 바라본 담양의 승경 30곳, 그것을 시로 읊은 〈면양정 삼십영〉은 사진시집으로 냈는데 이 책 역시 불티나게 나가 버렸습니다.

올해 추진 중인 담양문화총서는 이미 집필에 들어간 〈담양방언사전〉과, 기획단계에 있는 〈담양문화재대관〉입니다. 담양문화재대관은 담양의 문화재를 총체적으로 조사하고, 사진 찍고, 연구하고, 고증하고, 집필하여 낼 담양문화재의 총람이 되는 책으로 여기에 필요한 1억 정도의 자금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토문화총서의 발간은 또 다른 지역문화의 축적이지요 지역문화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담양문화원은 문화예술교육사업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4년째 실시하고 있는 담양문화예술대학 사업입니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업은 한국문화체험과 이주여성들 출신국의

예술 경연대회 등 세 개가 있는데 행사 때 마다

이주여성들이 이구동성으로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제일 재미있고 유익하

다는 얘기를 할 때면 참으로 보람이 느껴집니다.

지역문화원은 어떤 고차원의 문화예술 기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배려를 먼저 하는 것이 지역통합과 문화 복지 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 담양의 고유한 문화 공부만이 아니라 민족문화 전반과 일상생활에서 늘 활용되고 있는 예술 공부까지 전국의 내로라하는 전문 강사들을 초빙하여 벌이고 있는 이 사업은 이제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이를 처음 기획하여 군청에 예산을 요구했을 때 군에서 실시하는 21세기 포럼 강좌도 잘 안 되어 공무원들을 강제로 동원하는데 그 대학이 가능하겠느냐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첫 강좌부터 100여명이나 되는 자발적 수강생들이 모여 이 사업은 매년 16강좌씩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기존에 있던 문화학교의 풍물, 서예, 여성합창, 고전무용교실도 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전무용교실은 '우리춤너울회'로 재조직하면서 초급반 중급반 합쳐 5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주 2회씩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으로 판소리, 사 진, 기타, 염색, 한지공예교실 등 각종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을 벌여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문화예술을 배우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밖에서 주어지는 대로 즐길 수 있지만 교육을 통해서 문화의 능동적 주체자로 나설 수 있습니다. 문화향수의 소극적 태도에서 문화 창조와 생산의 주체자로 나설 수 있게 하는 것은 문화예술교육 뿐입니다.

세 번째 노인, 청소년,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으로 이는 참으로 보람 있는 사업입니다.

기타, 베이스기타, 만돌린, 아코디언, 건반악기, 색소폰, 트럼펫, 드럼, 가수 등 12명의 노인들로 구성된 실버악단

은 봉사공연을 통해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문화원연합회의 공모사업을 탄 '땡땡땡 실버학교'엔 노인들이 서로 참여하려고 해 3년 동안 너무나 즐거웠던 사업으로, 올해는 이 학교 출신들로 문화나눔봉사단을 만들어 한 달에 한 번씩 실버악단과 함께 봉사공연을 다닙니다.

•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으로는 청소년 시서화백일장대회와 인터넷 플라톤 독서논술교실 구축 사업입니다. 청소년 시서화 백일장 대회는 담양의 유일한 백일장대회로 올해 26회째를 맞는데 매년 1,0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3년 동안이나 심혈을 기울여 만든 인터넷독서논술교실은 농촌의 교육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교실 운영으로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들을 우리 문화원에서 대신 했습니다.

올해는 담양관내 10개 학교를 선정해 문화유산교육을 20여 회나 하는 향토사대중화사업을 새로 따내 착실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업은 한국문화체험과 이주여성들 출신국의 예술 경연대회 등 세 개가 있는데 행사 때 마다 이주여성들이 이구동성으로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제일 재미있고 유익하다는 얘기를 할 때면 참으로 보람이 느껴집니다.

지역문화원은 어떤 고차원의 문화예술 기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배려를 먼저 하는 것이 지역통합과 문화 복지 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넷째, 담양의 전통문화의 전승과 그것의 현대화를 위한 사

오늘날 농촌의 노령화는 심각합니다.

또한 각종 장애인 시설이 농촌으로 몰려듭니다.

이들에겐 문화 이전에 봉사나 나눔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들이 문화원의 고유한 업무는 아닐지 모르지만

모든 문화도 인간의 삶을 위해 존재한다면 문화의 약자들을 위한

나눔대로의 대책은 지방문화원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업입니다.

먼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담양관방제림의 당산제를 기획하여 올해 4회제를 실시했습니다. 담양의 자랑인 관방제림 숲을 보호하고 이를 널리 선양하기 위한 이 생태운동에 우리민족의 제례문화를 접목시킨 당산제는 담양군민 1,000여명이 참여하는 담양의 대표적 당산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효문화 선양 세미나입니다. 담양의 효자 효부들을 찾아내 효자 효부상을 시상하고 아울러 효문화에 대한 세미나를 통해 우리의 좋은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확산시키려는 데 중점을 두어 많은 칭찬을 받은 사업인데, 제작년까지 2회 제를 하고 작년엔 신종플루 때문에 열지 못했지만 올해 다시 3회 행사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자문화 콘서트입니다.

담양의 랜드마크이자 아이콘인 정자에서 옛 선비들의 예술과 풍류를 현대적으로 풀어보고자 마련한 이 콘서트는 담양의 정자를 찾아다니며 실시하는데, 시와 성악과 그림과 판소리와 노래와 각종 악기연주로 이루어집니다. 아주 수준 높고 품격이 높은 이 콘서트엔 인근 광주에서까지 많은 관객이 모입니다.

올해는 문화재청 사업으로 소쇄원, 식영정, 명옥헌 등 '신 1동3승' 가사문화 누정 생생 체험 사업을 군에서 따내 우리 문화원으로 넘겨주었는데, 4천만 원이나 확보한 사업은 방학 동안에 집중적으로 실시해 참가자들에게 담양의 전통문화 체험을 제대로 시키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명승지 도보순례, 가사문학

과 누정에 대한 전문교수들의 강의 및 가사 시조 창작대회, 그리고 각종 콘서트로 구성된 이 사업에 관내뿐만 아니라 오히려 관외 학생들이 더 많이 참가하여 우리 문화유산 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담양문화유산 스토리텔링 라이팅 사업을 소설가 문순태 선생을 초빙하여 작년에 처음 실시했고, 올해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지역의 전통문화는 그저 보호차원에서만 대하기보다는 그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재창조하는 일이 계속될 때만 더욱 빛을 발할 수 있고, 아울러 그 문화의 일상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과 함께 벌이는 각종 봉사 나눔 사업입니다.

이는 면민들을 상대로 풍물, 판소리, 민요, 고전무용, 가요, 악기연주 등을 통해 면민회합과 문화향수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2500만원의 또 다른 도비를 확보해 송년 푸른음악회를 열었는데 800석 규모의 문화회관 대공연장이 입추의 여지없는 큰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시설인 해림복지재단, 문화원의 자매병원인 창평노인전문병원, 노인요양시설인 원불교 성덕원, 알콜중독자시설인 금성면의 기쁨원 등 곳곳을 찾아 문화원의 자비로 봉사공연을 10여 차례씩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오늘날 농촌의 노령화는 심각합니다. 또한 각종 장애인 시설이 농촌으로 몰려듭니다. 이들에겐 문화 이전에 봉사와 나눔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들이 문화원의 고유한 업무는 아닐지 모르지만

모든 문화도 인간의 삶을 위해 존재한다면 문화의 약자들을 위한 나름대로의 대책은 지방문화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여섯째, 군민을 위한 대형 공연사업입니다.

먼저 담양대나무축제위원회에서 자금을 받아 작년까지 2회를 실시한 전국대나무회화대회는 전국의 서예인들 500여명이 참여하여 순식간에 성공시킨 사업이었는데, 올해는 축제행사에서 분리해서 가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대숲바람 담양환상곡이란 타이틀로 축제 때 벌이는 공연사업입니다.

이 공연은 품격 있는 공연을 만들려고 애쓴 결과, 공연 때마다 3만 여명의 관중이 모입니다. 여기에 모신 국악 및 가수들의 면면은 윤도현과 크라이넛, 이은미와 안치환, 오정해와 해바라기, 그리고 올해는 이동원과 여행스케치 등 그야말로 수준 있고 품격 있는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입니다.

또 하나 올해는 축제에서 마임공연과 아시아민족교류음악회의 공연을 하게 되는데 김광복의 대금과 몽골인들의 음악이 무척 기대됩니다.

연말에 실시하는 종합예술제와 대숲사랑하모니 공연 역시 우리나라 최고의 국악명창인 안숙선, 신영희, 대금명인인 원장현, 가야금병창 대통령 수상자인 이정아, 권하경, 송무달인인 박은하, 가수 김범룡, 그리고 성악가와 현대무용가, 기악연주자 등 최고의 연주자들입니다.

그리고 연중 48회 실시하는 죽녹원 주말상설공연은 한 여름과 한 겨울을 빼고 주말마다 열려 지역민과 관광객

들에게 담양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선양하고 문화적 볼거리를 제공하고있습니다.

담양문화원의 공연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공연 게스트들을 최고수준으로 채웠다는 것이고, 제대로 된 콘셉트를 만들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공연에 항상 신경을 쓰는 것은 일단 많은 사람들을 문화의 현장으로 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문화 환경 속에 놓일 때 사람들은 의식이 달라집니다. 달라진 의식은 사람들을 결국 문화적 주체로 나서게 합니다. 알아야 면장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강 말씀드린 담양문화원 사업들을 보면 농촌문화원이 무엇을 해야 할지 짐작이 조금은 갈 것입니다. 이 사업들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사업도 있지만 대개는 연중 내내 이어지는 사업으로 사무국장인 저와 간사가 둘이 벌이기엔 너무 벽차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서두에서 말씀대로 문화원 운영을 지역문화운동 차원에서 합니다. 제가 태어난 고향의 문화 소외자들을 위해 그들이 문화향수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문화원을 운영하기에 여러 어려움도 견딥니다. 지역의 열악한 문화 환경 속에서도 지역문화를 지키고 가꾸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는 각 문화원의 사무국장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어쨌든 지역문화운동 차원에서 문화원을 운영하다 보면 일에 더욱 신명이 날 것이고 문화원의 성장발전에 나름대로 이바지하리라고 믿습니다.

고재종 담양문화원사무국장

나는 서울로 영.어.연.수.간다

소그룹을 위한 다문화 영어체험

서울시 한 가운데에 있는 오피스텔에서는 영어를 새로운 맥락에서 가르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영어 교육가로 활동해 오고 있는 홍 성희선생님과 그녀의 미국인 남편 데니얼 케인선생님은 많은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만 여전히 외국인과의 의사소통 능력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영어 교육이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학습량이 많은 데 비해 효과가 떨어지며, 어떤 학생들은 영어 소통 능력을 위해 자신들의 가정을 떠나 외국으로 조기 유학도 떠납니다.

이런 현실을 안타까워 해 오던 홍 성희선생님과 데니얼 케인선생님은 한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어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영어 캠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한국의 학생들에게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을 알아야 세계를 안다

한국은 지금까지 영어를 잘 하기 위해 서양에 대한 공부에 치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없이 세계 무대로 진출한다면 남의 문화를 베끼는 수준에만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서울은 한국의 문화와 예술을 잘 보존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영어를 배울 때 서울에 있는 문화 유적들과 예술 행사를 이용한다면 영어도 배우고 우리나라에 대한 공부도 함께 되어 일석이조인 셈입니다.

지난 7월에 두 선생님께서는 중학교 일학년 남학생 네 명을 데리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영어 캠프를 개최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서울 남산에 올라가 서울 전경을 내려다보고 서울 성곽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조상의 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사동과 북촌 한옥 마을에서는 두 팀으로 나누어 treasure hunt(보물찾기) 게임을 하였는데 학생들은 인사동과 북촌 한옥 마을 지도를 갖고 지도상의 어느 지점을 실제 동네에서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 지점을 찾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옛 서울의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며, 그것에



대해서 두 선생님과 영어로 이야기를 나누어야만 했습니다. 밤에는 서울 광장에서 태권도와 다른 나라 무술 공연을 보고 공연이 끝난 뒤에 공연팀들을 영어로 인터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은 우리 나라의 문화와 예술에 대해 자긍심을 갖게 되었고 영어를 더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나라의 우수한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두 선생님께서 학생들과 일박 이일동안 함께 자고 먹고 하면서 일구어낸 성과였습니다.

서울은 국제도시다

홍 성희선생님과 데니얼 케인선생님의 “나는 서울로 영어 연수 간다.”는 새로운 개념의 영어 캠프입니다 영어 캠프를 통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고양시키고 국제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히며 다양한 국가와 인종과 문화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그들을 포용할 줄 아는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서울은 그런 미래의 지도자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거나 방문하는 서울은 학생들이 타문화에 노출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 외국으로 가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제적인 부담과 가족과 떨어져야만 하는 심리적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국제도시인 서울에서 하는 영어 캠프는 그런 부담을 없애면서도 영어로 의사소통을 잘 하게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은 세계로, 세계는 서울로

두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서울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다른 도시들과 세계 여러 도시에서도 영어 캠프를 열 예정입니다

한국과 여러 나라들의 다양한 도시를 직접 방문하여 각 도시마다 고유한 문화와 예술을 체험하면서 영어를 배우고 그 곳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세계인으로서, 더 나아가 멋진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한국의 어린 학생들을 돕는 것이 두 분 선생님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언젠가는 많은 외국 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배우러 서울에 오는 것을 꿈꿉니다.

한국 학생들과 외국 학생들이 같이 북촌 한옥 마을에서 지도를 들고 다니면서 우리 나라의 진짜 보물을 찾아다니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나는 서울로 영어 연수 간다.”가 있어서 그 날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



책 수집가
안정웅의
오거지서 (五車之書)

인간 내면의 울림세계

옥중편지를 읽다 (I)

“도련님 옥체 편안하십니까?”

소녀 춘향 어려이 지필묵을 얻어 이렇듯 글을 올립니다.

한양엔 무사히 도착하셨는지

이번 과거에는 무사히 통과 하셨는지

궁금하기 이를 데 없으나 소녀 이렇듯 글을 쓰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그저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런 때일 수록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지성으로 기도를 올려야 할 것인데

새로이 부임되어온 본관사또의 포악함이 그지없어

세간에 떠도는 미혹한 소문만 믿고

규중 수절하는 소녀를 끌어내어 수청 들라 하심을

거절하였더니 무고한 소녀를 옥에 가두어

같은 고초를 겪게 되었으나

이는 하늘이 소녀의 정절을 시험하심이라 믿고

더욱 굳은 의지로 이겨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 ⊥ ㄱ ㅈ ㅊ ○ ㅍ ㅋ ㄴ ㅅ | ㄹ _ ㄹ

○ | ㄹ ㄱ ㄷ ㅌ

이 글은 춘향전의 한
은 춘향이의 오주공

이 글은 춘향전의 한 부분을 현대적으로 각색하여 지은 춘향이의 옥중편지 일부이다.

이 글에서 보듯 옥중편지야말로 간혀 있는 한 인간이 그만의 명상 속에서 자기가 답과(踏破)해온 길을 돌아보고 오늘을 성찰하며 내일을 설계하는 절절한 글로서 그것을 통해 상대 수신자와의 이해나 신뢰를 두터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고 매체이다.

예로부터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옥에 가두거나 떠나면 곳으로 유배시키는 귀양살이의 형벌을 가했다. 감옥이나 유배지는 외부와 단절된 곳으로서 주민접촉이 한정되고 생필품 조달조차 힘든 곳이다.

그래서 체념의 삶이되기 쉽고 한이 쌓일 수밖에 없다. 영어(圜圍)의 몸이 된 이들에게 현실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고독과 분노를 삭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편지쓰기였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옥중편지는 그



사람의 내면의 올림세계와 처절한 삶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알려진 옥중편지의 효시로는 AD 61~63년 사도바울이 옥중에서 쓴 4개의 옥중서신 곧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이다. 이 옥중서신의 별명은 구속의 서신이라고도 한다.

근현대에 와서 세계 각국에서는 종교적인문제, 식민지로부터의 독립, 인종차별에 대한 저항, 정치사상문제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금됐다. 특히 죽음을 앞둔 이들이 옥중에서 쓴 편지는 우리에게 아픔과 감동을 주고 있다.

한국교회 순교자들이 쓴 최초의 옥중편지인 '이순이 루갈다 남매 옥중편지'는 이경도, 이순이, 이경언 삼남매가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며 어머니와 가족과 친지들에게 보낸 편지이다. 이순이(李順伊 루갈다 1782~1801)는 가족들에게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말은 참되다.”고 하며 간곡하게 유언하였다.

일제하 최장기 복역 독립운동가로 광복 후 친일과 청산 운동을 주도했던 정이형(鄭伊衡 1897~1956) 선생이 옥중에서 딸에게 보낸 서신은 아버지로서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 미안해하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딸의 장래를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 담긴 내용으로 이 편지는 독립운동가의 영웅적인 대외 활동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면모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사료로 평가된다.

“나는 대한 사람이다. 우리나라를 위해 독립만세를 부른 것이 죄가 되느냐 너희는 나에게 죄를 줄 권리가 없고 나는 너희 왜놈 들에게 재판을 받아야 할 이 유가 없다.” 하고 재판을 거부하며 글을 쓴 유관순 열사의 옥중서신과 다음의 안중근의사 어머니의 옥중서신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글이다.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는 그것은 일제에 목숨을 구걸 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탄 맘 먹지 말고 죽으라” 참으로 그 어머니애 그 아들다운 글이다.

인도의 초대 총리를 지낸 네루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운동을 펼치다 투옥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딸에게 보낸 편지, 무저항운동의 상징 간디와 남아공의 만델라의 옥중편지, 알라버마주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백인목회자 8인에게 보낸 옥중편지를 통해 당시 미국사회에 만연하는 인종차별에 대해 결연히 일어나 평화적인 시민운동으로 그 사회조직의 악에 대해 항거하고자 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옥중편지들은 너무나 유명하다.

영어의 몸이 된 사람들이 유일하게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쓴 편지들은 분량에 따라 책으로도 출판이 되었다. 이중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몇 권의 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모두 문장의 결이 곱고 애국·애족정신과 가족 사랑이 넘차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순이 루갈다 남매 옥중편지

〈이순이 루갈다 남매 옥중편지〉는 이경도·이순이·이경언 삼남매가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며 어머니와 가족과 친지들에게 보낸 편지로,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성심과 형제간의 뜨거운 우애심, 이웃에 대한 애정, 그리고 깊은 신앙심이 절절하고 진솔하게 담겨 있다.

이경도와 이순이의 편지는 한국교회에서 순교자들이 쓴 최초의 옥중편지이다. 이경도(李景陶, 가롤로, 1780~1801)는 신유년(순조 1) 12월 26일(양력 1802년 1월29일) 서울 서소문 밖에서, 여동생 이순이(李順伊, 루갈다, 1782~1801)는 같은 해 12월 28일(양력 1월 31일) 전주 숲정사에서, 막내 동생 이경언(李景彦, 바오로, 1792~1827)은 정해년(순조 27) 윤 5월 4일(양력 6월 26일) 전주 감옥에서 순교하였다.

일찍이 역사는 이순이를 한국 순교자들 중 가장 훌륭한 인물로 높이 평가하였다. 다블뤼 주교는 1858년

편찬한 《한국 주요 순교자 약전》에서 “우리는 한국 순교자들의 보석인 이 소중한 이 루갈다의 생애가 황금글자로 묘사되기를 바란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부족하나 옥중편지들이 보충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하늘의 도우심인 가, 다블뤼 주교는 1859년에 꿈에서도 찾던 이순이 남매 옥중편지를 발견하였다.

다블뤼 주교는 이순이 편지를 프랑스어로 번역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느끼며 “문체는 그 사람의 교육이 제대로 되었음을 드러내 보이는데, 문체가 힘차고 때로는 마음을 사로잡는 설득력이 있으며, 시종 많은 아름다운 말로 가득차 있습니다.

저는 지극히 평범한 말로 번역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유감”이라고 고백했다.

이순이의 옥중편지는 20세 약관의 처녀가 쓴 글이라고 믿기지 않게 문장이 수려하고, 그 뜻이 깊다. 그럴 만하였다. 이순이의 가문은 본가와 외갓집 모두가 선비 집안이었다. 이순이의 정신력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은 어머니 권씨 부인이었다.

이순이가 모범적으로 실천한 효도와 우애 그리고 아녀자의 도리, 깊고 넓은 해박한 지식, 한글과 한문의 실력은 가정교육의 결과였다.

이순이 남매들의 옥중편지는 다블뤼 주교의 《조선 주요 순교자 약전》과 달레 신부가 다블뤼 주교의 자료를 토대로 저술하여 1874년 파리에서 간행된 《한국천주교회사》, 그리고 호남교회사연구소의 《이순이 남매편지》필사본 등 세 곳에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다블뤼와 달레의 책은 한국인의 정서, 한국문화와 관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옥중편지를 다 소화하지 못했고, 호남교회사연구소에 소장된《이순

이 남매편지》필사본은 1868년 8월 울산 장대에서 순교한 대구교구의 순교자 김종륜(金宗倫, 루가, ? ~ 1868)이 필사하여 소장하던 것인데,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모든 말을 현대 말로 풀어 번역하였다.

《이순이 남매편지》필사본을 현대문으로 번역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순이는 한문에 능통하여 어려운 한문을 늘 사용하는 말처럼 한글로 썼기 때문에 한자로 어떻게 적을지 몰라 정확한 뜻을 파악하기 어렵고, 그 시대 사용하던 편지투와 정서를 이해하는 것도 힘든 일이었다.

이순이는 옥중에서 인간살이를 차근차근 정리하였다. 주문모 신부는 이순이에게 유항검이 박해를 당하거나 박해의 상황을 소상히 기록하여 두도록 일러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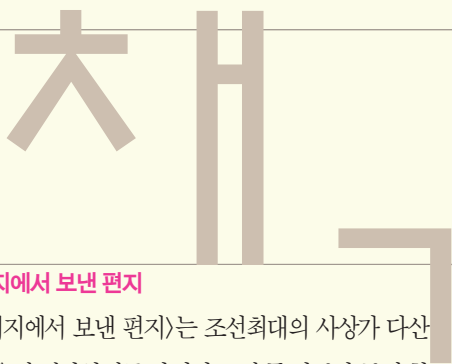
그리하여 이순이는 유항검이 당한 박해의 자초지종을 적어 시동생 유문석 편에 친정으로 보냈다. 9월27일(양력 11월 3일)에는 친정 어머니에게 유서인 옥중편지를 써 보냈다.

그러나 이순이의 옥중편지는 이순이 자신의 말대로 편지 내용이 몇 번이나 반복되고, 문맥이 맞지 않는 대목이 많다.

늘 캄캄한 감옥에 있으며 옥사장의 눈을 피해 틈틈이 몇 자씩 쓰다가 중단하기를 수없이 거듭하며 겨우 겨우 썼기 때문에 황성수설하는 편지가 된 것이다.

이순이의 가문은 정치일선에 밀려난 몰락한 양반이었다. 그러나 가풍은 비록 벼슬을 못해도 성인은 될 수 있다는 그런 정신으로 몸과 마음을 닦는데 게을리하지 않도록 엄히 가르쳤다.

이러한 정신이 옥중편지에 고스란히 담겨 녹아져 있다.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는 조선최대의 사상이 다산 정약용이 귀양살이를 하면서 그의 두 아들과 둘째 형님(정약전),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들을 실은 책이다.

고고한 선비정신을 엿볼 수 있는 참으로 감동스런 책이다. 200여년 전, 척박한 남도 땅에서 18년 간 유배 생활을 하며 잠시도 붓을 놓지 않았던 한 외로운 학자의 편지를 통해 그 마음속을 들여다 볼 수 있다.

다산 정약용은 ‘한자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저술을 남긴 대학자’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학자였다.

하지만 그 역시 대학자이기 이전에 한 가족의 아버지였고, 속깊은 동생이었으며, 올바른 스승이었다. 유배지에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보낸 다산의 편지는 ‘학자 정약용’이 아닌, ‘인간 정약용’의 모습을 보여 준다.

인생의 선배로서 아들에게 남기고 싶은 한마디 한마디를 써 내려가는 것은 물론 형님의 건강을 염려하여 개를 잡아먹는 법까지 상세히 알려주는 다산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마음을 다해 가족을 사랑했는지 보여 준다. 다산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편지글을 통해 200여년 전 치열하게 살아간 한 인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다산사상 연구회를 조직해 평생을 다산을 연구해온 박석무가 편역하여 창작과비평사에서 1979년 초판을 간행한 이래 판을 거듭하고 개정 증보판이 나왔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1부는 다산이 신유사옥에 걸려 애매하게 귀양살이를 떠난 1801년부터 귀양살이

가 풀려 고향으로 돌아온 1818년 사이에, 다산의 나이로는 40세부터 57세까지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 26편을 모두 번역해서 수록한 것이다. 이 편지를 보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하며, 무슨 공부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한편, 불의와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 다산의 매서운 선비정신을 엿볼 수 있다. 더구나 어렵고 어두운 유배생활에서 자신의 고달픈 삶을 토로하지 않으면서 아들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아버지의 바람을 자상히 기술하고 있어 더욱 감동적이다.

제2부는 귀양지 다산에서 1808년과 1810년 두 해에 걸쳐 다산이 두 아들 학연과 학유에게 내려준 가훈 9편을 모두 번역해서 수록했다.

다산의 이 가훈은 생계를 꾸리는 방법, 친구를 사귄다 때 가려야 할 일, 친척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방법, 선조 어른들이 사귄 친구들의 범위와 그 관계 등을 아버지로서 일러줄 뿐 아니라 자신의 저술을 후세에 전해야 하는 뜻과 저술하는 방법과 요령 그리고 시를 짓는 의미와 효용 등을 아버지와 스승의 입장에서 깨우쳐주고 있다.

이밖에도 호연지기를 지니고 부지런하고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는 삶의 태도와 후세에 꽃다운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대가 없이 베풀어야 한다는 주장에 이르면 생활철학의 큰 도리를 듣는 것 같다.

제3부는 다산이 강진에서 귀양살이를 하면서 흑산도에서 귀양살이를 하는 둘째형 약전(若銓)에게 보낸 편지 17통 가운데 13편을 골라 번역해서 수록한 것이다.

이들 형제간에 주고받은 편지는 그 내용으로 보아 귀양살이의 고초를 어느정도 극복하고 정신적으로 약간의 안정을 찾아서 학문에 정진하던 1805년부터 정약전이 병으로 흑산도에서 별세하던 16년 여름까지 10여년 사이에 주고받은 것이라 짐작된다.



오 거 지 서 오 표 제 1 권 2 권 오 이 러 기 다 사

혈육의 정을 함께 나눈 형제가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유배생활을 하면서도, 전혀 불우한 처지나 입장에 구애받지 않고 서로 학문적 깊이로 탄복하며 인생을 토로한 높은 수준의 서간문학이다.

제4부는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9편의 글로, 제자들의 생계에 대해서까지 염려해주는 자상한 스승의 마음씨가 드러나고 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가치관을 바라볼 수 있는 이 한편의 책, 대학자로서의 다산 정약용 선생 뿐 아니라 그분의 인간적인 면모까지 살펴볼 수 있다.

삶속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폐족으로서 어떤 방식으로 학문을 대해야 하는가,

선비라는 지위를 가지고 현명하게 살아가려면 어떤 방식이 필요한가, 이런 주제에 관련된 정약용 선생의 생각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다.

시대와 상관없이 학문을 출세의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는 진심으로 학문을 몸가짐을 바로잡을 수 있고 인격을 도야할 수 있는 것으로 봤다.

이미 폐족이 되어 학문을 통해 벼슬자리에 나아갈 수 없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학문을 익히도록 격려하는 글에서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만 학문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학문의 본래

적 가치를 추구하는 연구에 깊은 관심을 쏟으며 각종 저술에 열정을 보인에서 우린 알 수 있다.

유배지에 있는 스스로가 가장 어려운 처지이면서도 가족과 친지, 제자까지 신경쓰며 세세하게 챙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김대중 옥중서신

〈김대중 옥중서신〉은 제목 그대로 옥중에서 부인과 가족들에게 보낸 고 김대중 대통령의 편지를 모은 책이다.

1980년 소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구속된 김대중이 교도소에서 부인과 세 아들, 큰 며느리 앞으로 보낸 편지 29통을 묶은 책이다. 1984년에 처음 출간되었다.

그는 1980년 9월 사형선고를 받은 뒤부터 1982년 12월말 서울대병원에 입원 조치되기 직전까지, 한 달에 단 한 번 관계 봉합엽서 한 장을 쓰는 것이 허용된 틈을 최대한 이용하여 최대 원고지 100여 장 분량의 글을 깨알 같이 채워 넣었다.

때로는 유언처럼 절절하게, 때로는 절대자에게 매달리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많은 독서와 깊은 사색의 결과물인 그의 세계관과 철학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그의 많은 책 중에서도 첫 손에 꼽을 수 있는 저작이다.

처음에는 슬픔에 빠진 가족들을 위로하는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무기정역으로 감형된 이후부터는 가족들에 대한 당부와 함께 자신이 읽은 책에서 얻은 지식을 정리하고 당시 국제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 사람과 세상에 대한 여러 단상들이 같이 기록되 서신이 매우 길어지게 된다.

한 달에 단 한 번만 서신을 보낼 수 있어 엽서 한장에 원고지 100장 분량의 글을 깨알같이 기록하고 그러고도 할 말이 더 있는데 다 쓰지 못해 안타깝다고 토로하는 서신 내용을 보면서 애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서신마다 천주교 신자로서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강한 신앙심이 드러난다. 목숨을 잃을 뻔 하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등 역경을 헤쳐 올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 부인과 아들들에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당부하는 등 그는 힘겨운 옥중생활을 강한 신앙을 통해 버텨왔다.

부인에게 보내는 서신중에서 전도를 할 때는 이렇게 하라는 부탁도 있었다.

이 옥중서신은 참으로 아름다운 편지글이라 생각된다. 어떤 연애편지보다 감미롭고, 달콤한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찬 사랑의 글들이다.

그는 사형이라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 벼랑의 끝에서 서서 등 뒤의 가로막힌 담벼락과 밑으로 꺼져있는 절벽은 아랑곳 없이 그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확인

한다.

사람이 어려울 때 본래 모습이 나온다고 하던가. 죽음이라는 최고의 고통 앞에서 그가 써내려간 신에 대한 믿음과 삶에 대한 소망은 그가 말해오고 고백해 오던 것들이 진짜였음을 확인시켜 준다.

그 자신의 삶에 대한 진지한 고백뿐 아니라, 부인과 아들들과의 사랑의 교류는 고난 속에서도 지치거나 굴복하지 않았던 힘의 원천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가족애 즉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려준다.

이 옥중서신이 미사여구로 포장된 편지가 아닌, 자신의 고난에 대한 두려움과 아픔 그리고 그로인해 함께 고초를 겪고 있는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애달픔, 또한 친지와 주위 사람들에 대한 절절한 안타까움의 고백으로 채워져 있는 탓에 이 옥중서신은 더욱 아름다운 편지가 된다.

가족에게 보낸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노트인 것 같기도 하며, 대중을 향한 강의록으로도 느껴진다.

이 책의 또다른 장점이라면, 좋은 책들에 대한 추천이 중간 중간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 무슨 책을 읽어야 좋을 지 모르는 일반인들에게는 독서생활의 좋은 지침이 된다.

리더에게 있어서 역사의식이 얼마나 중요한 지도 다시금 느끼게 해 주는 이 책은 정치/경제/역사/문화/예술/철학/종교 등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한 저자의 생각과 비판이 담겨있는데, 우선 방대한 지식의 양과 그 깊이에 감탄하게 되고, '가족'이라는 구성의 존재 모습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준다.

(다음호에 계속)



안정웅 성결대학교 객원교수

2010년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170개 사업 지원

어르신의
사회참여
늘어나고,

하반기에
성과관리
집중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는 금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23억원을 지원받아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이 8월 중순을 기점으로 사업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연합회와 지방문화원은 사업인지도 확산이나 언론홍보, 컨설팅 등 성과제고에 주력하고 있다(표 참조).

〈표1〉 2010년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사업경과 및 향후계획

구분	사업선정 및 예산교부	컨설팅워크샵	성과관리 및 향후계획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사업설명회 2,17	생활문화전승 4,12~13	컨설팅단운영용역 6~11월
	사업공모 2,19~3,12	2010년상반기 5,10~11	사업홍보용역 7~11월
	(4,7월 추가공모)	생활문화전승 7,27~28	평가연구용역 9~12월
	사업선정 170개원	자유공모기획학교 8,9~10	사업성과사례집발간 12월
	(239개원 응모)	찾아가는문화학교 및	단위사업및사회적기업화
	예산교부 4,30, 8,24	문화 나눔봉사단 8,31~9,1	추진워크샵 9~11월
			사업평가워크샵 12월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과 동시에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문화예술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 개선과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기획된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은 2005년 10개문화원에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금년까지 6년째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09년부터는 기존 복권기금에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예산기반이 조성되었다.

금년 다양한 신규사업 시도통해 발전 모색

금년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위해 다양한 내용으로 변화를 모색했다는 점이다.

기존의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의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찾아가는 어르신문화학교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어르신 생활문화 전승 프로그램 등 금년에는 크게 3가지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신규사업은 대부분 일자리창출이나 봉사단활동 등 어르신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라는 특징이 있다.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이 105개 사업에 지원총액이 913백만원(1개사업 평균 870만원)인 반면, 금년 신

찾아가는 어르신 문화학교는
문화 소외지역에 대한 배려와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큰 의미가 있다.
기존의 문화원 시설에서의 교육방식은
교육욕구가 있는 어르신들이
지리적인 이유 등으로 수강이 어려운 점을 보완하여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으로 찾아가는 '출장교육' 형태다.
또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강의가 가능한
어르신 문화학교 수료생을 강사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강의료를 지급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문화나눔봉사단은 어르신 문화학교 수료생들로
공연단을 만들어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
문화봉사를 하고 있다.



규사업은 65개에 1,087백만원(1개사업 평균 1,672 만원)을 차지하여 신규사업에 상대적으로 예산투 자 등이 집중되어 있다.

찾아가는 어르신 문화학교는 문화 소외지역에 대 한 배려와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큰 의미가 있다. 기존의 문화원 시설에서의 교육방식은 교육욕구 가 있는 어르신들이 지리적인 이유 등으로 수강이 어려운 점을 보완하여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으로 찾아가는 '출장교육' 형태다.

또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강의가 가능한 어르신문 화학교 수료생을 강사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들에 게는 강의료를 지급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 고 있다. 문화나눔봉사단은 어르신 문화학교 수료 생들로 공연단을 만들어 문화소외지역을 찾아 문 화봉사를 하고 있다. 경북 문경문화원의 봉사단

'문소공'의 경우 관내 읍면에서 공연하는데 관객 이 많을 때는 500여명이 모인다고 한다.

어르신 생활문화 전승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이 살 아온 생활문화, 생애, 지식과 경험 등을 창조적 문 화콘텐츠로 개발하여 전승하는 프로그램이다.

강원 정선문화원의 '주막에서 부르는 정선아리 랑'의 경우 이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직접 60 년만에 나룻배를 복원하여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의 과제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은 정부정책에 따라 매년 공 모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고 있다. 공모사업의 가 장 큰 장점은 공정한 심사에 있다. 그러나 문화원 에서는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어려움



을 호소하고 있다.

공모방식을 유지하더라도, 문화원별 금년 사업의 정확한 평가에 따라 내년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공모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금년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의 사업기간은 평균 6.9개월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사업기획 및 수강생 모집기간 등을 제외하면, 실제 사업기간은 6개월을 넘지 못한다.

수강 어르신들은 1년에 걸쳐 사업이 지속되길 바라지만, 현재의 구조로는 불가능하다. 연합회의 공모, 선정, 예산교부 기간의 단축이 필요하고 문화원 교부예산의 증액도 필요하다. 일선의 포천문화원이나 영암문화원의 경우 어르신들의 요구에 따라 사업공백 기간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반기 사업평가 및 연구 등 성과관리 에 집중

금년에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의 성과관리 사업은 컨설팅, 홍보, 평가및연구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기존의 컨설팅트 개인들과 결합하던 방식에서 전문업체에 아웃소싱을 통해 컨설팅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업체의 주도적인 컨설팅디자인과 실행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사업시행 문화원을 대상으로 전체 또는 단위사업에 대한 컨설팅워크숍을 추진했다. 9월 이후 컨설팅워크숍은 사회적기업 및 생활문화전승, 전체 평가워크숍 등이 계획되어 있다. 또한 전문 홍보회사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적극적인 언론 홍보와 고령화사회 어르신의 문화향유 활성화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에 추진하고 있다.

8월 17일 현재 연합회에서 조사한 홍보실적을 보면 총130회의 언론보도가 있었으며, 그 가운데 지방일간지의 보도횟수가 51회(39%)로 가장 많았다. 금년 사업평가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평가방식에 따라 사업의 지속가능성, 참여자,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등을 주요하게 평가할 계획이다.

연구방안은 금년의 다양하게 추진되는 단위사업 평가를 바탕으로 내년도에 사업에 적용하고 단기, 중기적인 발전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된다. 특히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이 6년간 지속되면서 지방문화원 실무자의 풍부한 현장경험과 사업의 전문성을 갖추게 되었다.

향후 이들을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코칭인력으로 양성하여 문화원간 컨설팅이 가능토록 할 연구와 시범운영을 할 계획이다.



한국 문화,
이젠 어색하지 않아요!

한·미 어린이 썸머스쿨 2주간의 프로그램 성료



다문화의 시대. 1945년 광복의 기쁨도 잠시, 1950년의 한국전쟁은 전국토를 황폐화 시키고 말았다. 금년에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60주년이 되었고, 그 60년 동안 우리는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 세계속의 한국으로 성장 발전하였다.

이제 우리는 세계 속으로 활동 무대를 넓혀 나가고 있고, 한편으로는 세계의 모든 나라 주민들이 우리 나라와 교류하는 다문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지방화 시대에 향토문화의 세계화라는 과제, 다문화 시대에 우리의 문화를 어떻게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지 깊이 고려해 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

무더운 한여름 평택에서는 평택시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및 가족들과 문화로 어우러지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 작은 문화 운동을 통해 더 큰 문화의 꽃을 피우게 될 것이란 기대를 가져본다. _편집자 주

“달빛 어스름, 한밤중에~”, “태권도! 태권!” 여름방학으로 조용할 학교에서 동요 소리가 흘러나오면, 우렁찬 기합소리가 가득하다.

평택문화원(원장 오용원)이 지난 8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2회에 걸쳐 한·미 어린이 썸머스쿨을 진행했다. 평택시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자녀와 평택시 관내 한국 어린이들이 5일간 참가한 ‘한·미 어린이 썸머스쿨’은 양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평택 이충초등학교 영어실에서 진행된 ‘한·미 어린이 썸머스쿨’은 국악동요와 외국동요, 태권도 등의 프로그램과 함께 미군부대 투어 및 음식, 스포츠 체험, 인사동 및 경복궁 관람 등 상호간의 문화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 프로그램에는 한미 양국 어린이 90여명이 참가했으며, 특히 한국 어린이들은 5일간의 일정을 모두 영어로 진행한다는데 부담감을 갖고 수업에 임했으나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가 동화되어 화기애애한 가운데 프로그램을 마칠 수 있었다.

한·미 어린이들이 서로의 문화를 쉽게 배우기 위해서 수업은 먼저 동요부터 진행됐다. 국악동요로 ‘아리랑’과 ‘산도깨비’를, 외국동요로 ‘반짝반짝 작은 별’을 배웠으며, 복장을 갖춰 입고 사범의 지도아래 태권도를 배울 때는 참가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막기, 찌르기, 발차기를 힘찬 함성소리와 함께 시연해 보였다.

프로그램 가운데는 가장 한국적인 곳을 관람하고,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썸머스쿨

셋째 날에는 서울 경복궁을 방문해 조선시대 임금님이 업무를 보았던 공간과 왕비의 처소 등 여러 시설들을 문화관광해설사로부터 영어로 설명을

들었으며, 인사동에서는 한국 음식인 불고기를 먹어보고, 우리의 전통방식인 나전칠기 기법으로 손거울을 만들어보는 공예체험의 기회도 가졌다.

특히 수업 중간에는 다식과 오미자차 등 한국음식 만들기과 나만의 컵 만들기 등의 생활도예, 수료식 때에는 한복 입어보기, 떡메치기, 전통무예 관람 및 갑옷 입어보기 등 어린이들의 흥미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정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수료식에서는 참가 학생들이 3일간 함께 준비했던 국악동요와 외국동요, 그리고 태권도 공연이 이어졌다. 짧은 준비 기간으로 유창한 공연은 아





니었지만 수료식 발표 준비를 하면서 한·미 어린이들이 우애도 다지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자리였다.

‘한·미 어린이 썸머스쿨’에 참가했던 유지수(13세, 평택성동초) 어린이는 “이번 기회를 통해 미국인 친구도 사귀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으며, NATALIA A. GOMEZ(USAG Humphreys, 10세) 어린이는 “평소 내가 사는 한국과 경기도 평택시에 대해 알고 싶었는데, 이를 해소하는 유익한 시간이 됐으며 한국 아이들도 나와 똑같은 친구임을 느끼게 됐다. 함께했던 5일이 너무 재미있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 사업을 주관한 평택문화원 오용원 원장은 “평택은 주한미군의 핵심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다.”며, “한·미 양국간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한,미 어린이가 서로 이질적인 문화를 벗어나고, 서로 동화해 세계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죽음,

그것 또한 '삶의 한 과정' 이고 '쉬는 것'

모든 인간은 누구나 '탄생의 門'을 통과 이 세상에 나왔지만 결국, '마침의 門'을 한 번 더 지나가야 한다.

쉽 박물관은 우리 전통 상여(喪輿) 문화를 보여주는 상여가마, 혼백을 모셔 운반했던 요여, 옛 사진 자료 등을 중심으로 조상들의 죽음에 대한 해석을 재조명하는 편안한 쉼터가 되고자 설립하였다.

특히, 하늘, 땅, 불 등의 자연 삼라만상의 모습을 상상해가는 의인화시킨 목각 조형물들과 영혼을 보호하고자 제작된 용수판과 도깨비 형상들로 장식했던 우리 조상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과 해학 그리고 순수성과 예술성 등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삶과 죽음이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주제를 일상에서 편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고자, 설립자의 집을 전시실과 휴식처로 개조하였으며 소장품들과 현대작가들의 주제전도 다양하게 기획하여 관람객들과 편안한 의사소통을 해 나가고자 한다.

_쉽 박물관 설립목적





쉽,

따뜻하고 포근한 모양이 머릿속에 만들어지는 기분 좋은 말이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쉽'은 새로운 도약의 원천이며 어머니의 자장과 같은 보드라운 안식이다. 죽음이란 '쉽'을 위한 여행이 아닐까.

'죽음'이 무겁고 어려운 주제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죽음, 그것 또한 '삶에서 결코 무시하지 못할 한 과정' 이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쉽'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삶을 살아가기에, 죽음을 받아들이기에 더 당당해지고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삶의 소중함 느끼는 편안한 쉽터 '쉽 박물관'

우리 조상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과 해학, 그리고 순수성과 예술성을 엿볼 수 있는 '쉽 박물관', 그곳을 들여다본다. 서울 종로구 홍지마을 안에 위치한 쉽 박물관은 집 자체가 박물관으로 꾸며진 독특한 공간이다. '쉽'이나 '휴식'이란 단어

를 생각할 때 누구나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은 '가정' 혹은 '집' 일 것이다. 박물관의 틀에서 벗어나 가정집을 전시관으로 꾸몄다는 것이 '쉽'이란 의미와 걸 맞는 편안한 느낌이다. 쉽 박물관 박기옥 설립자는 현재 살고 있는 집 1층과 2층 및 지하공간을 죽음에 관련된 박물관 및 전시공간으로 바뀌어 놓았다. 1층 상설 전시실은 망자의 시신을 운반하는 상여와 망자(亡者)의 영혼을 운반하는 요여가 전시돼 있다.

상여 앞뒤에 달아 잡귀를 쫓는 용수판(龍首板)과 다양한 목각 인형이 전시돼 있고, 이수일과 심순애, 심청전, 오성과 한음 등 잊혀져가는 옛 이야기를 교육적으로 엮은 테마관으로 꾸며져 있다. 2층 전시실은 용·봉황·도깨비 등 동물 형상의 날것들을 곳곳에 꾸며 놓는 등 1,2층에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에 사용한 상여, 요여, 상여 장식 등 1082 점이 가지런히 전시돼 있다. 지하특별실은 현대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로 운영되고 있다. 한 인터뷰를 통하여 박기옥 쉽 박물관 고문(75·사진)은 죽음을 '삶의 한 과정' 이고 '쉬는 것' 이



라고 했다. 그가 장례품 들을 모아 개관한 박물관이 '쉽박물관'인 것도 그런 생각 때문이다. 2006년, 긴장했던 남편이 갑자기 암 선고를 받고 숨을 거두게 됐을 때 죽음에 대한 철학이 바뀌게 되었다고 한다. 남편이 잠자듯 죽는 걸 보면서 솟아오르는 슬픔 한편으로 '아, 이 사람이 편히 지는구나, 편히 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남편의 죽음 이후 죽음의 의미를 새롭게 받아들이게 된 박기옥 고문은 죽음을 테마로 박물관을 만들기로 한다. 그리하여 2007년 10월 8일 남편의 기일에 박물관을 오픈하게 되고 이름을 '쉽박물관'이라고 정한다.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과 해학 그리고 순수성과 예술성

죽음을 테마로 만든 국내 최초의 박물관이라는 점에 있어서도 의미가 있지만 본인이 살고 있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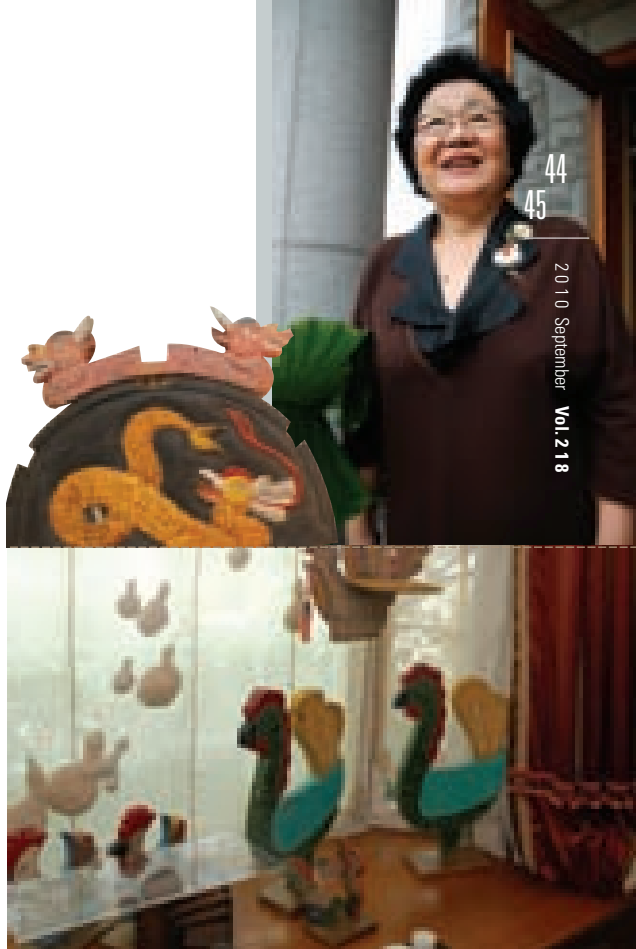
을 전시실로 꾸몄다는 점이 이색적이다. 박기옥 고문이 식사를 하는 부엌의 식탁 뒤에는 목인들이 전시돼 있고 거실, 화장실 등 어디서나 장례문화를 보여주는 전시품들을 만날 수 있다. 쉽박물관은 그야말로 박기옥 고문의 일상과 전시가 한데 어우러진 공간이다. 박 고문이 잠자는 공간인 안방에 침대 대신 상여가 있는 이색박물관으로 보도된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죽음을 상징하는 전시품과 함께 사는 것이 무섭지 않느냐”는 질문에 “삶과 죽음이 원래 같이 가는 건데 뭐가 무섭냐”는 죽음에 대한 철학이 묻어나는 박 고문의 명확한 답변.

지금은 보기 어려운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 낡은 흑백 필름처럼 지나간다. 유난히도 화려하고 탐스런 꽃 몽우리들과 번쩍이는 몸체를 휘감으며 하늘로 올라가는 용의 형상이 달린 화려한 꽃상여가 상여꾼들의 어깨에 올라 시골길을 휘이휘이 멀어

지금은 보기 어려운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 낡은 흑백 필름처럼 지나간다.
 유난히도 화려하고 탐스런 꽃 몽우리들과
 번쩍이는 몸체를 휘감으며
 하늘로 올라가는 용의 형상이 달린
 화려한 꽃상여가 사람들의 어깨에 올라
 시골길을 휘이휘이 멀어져가던 모습.
 떠나가는 망자를 '쥬' 으로 인도하는
 요령잡이의 선소리를 따라
 어린 나도 망자를 인도하기에 흥얼흥얼,
 한 뭉 거들며 잔치에 젖어 있었던,
 그날은 일 년에 한두 번 올라 말까 하는
 우리 동네의 큰 잔칫날이었다.



저가던 모습. 떠나가는 망자를 '쥬' 으로 인도하는
 요령잡이의 선소리를 따라 어린 나도 망자를 인도
 하기에 한 뭉 거들듯 흥얼거리던, 그날은 일 년에
 한두 번 올라 말까 하는 우리 동네의 큰 잔칫날이
 었다. 상여 위에는 물구나무 선 기인, 포졸, 선비
 등 다양한 목인들이 유머러스한 표정을 띠고 있
 다. 사람이 죽으러 가는 데 이렇게 재밌는 표정을
 지어도 되는가 싶지만 조상들은 죽음을 엄숙한 의
 식으로만 생각하지 않았기에 가능했을 듯. 익살스
 런 표정의 목인은 죽음으로 가는 영혼을 즐겁게
 보내고, 무거운 상여를 지고 가는 상여꾼들도 가
 벼운 마음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한 조상들
 의 지혜였을 것이다.
 한 사람의 죽음이 마을의 축제였음은 우리의 조상
 들은 이미 '죽음이란, 삶을 살아가는 과정의 차이
 가 있을 뿐 죽음 또한 삶의 일부' 라 생각하고 있었
 던 것이 아닐까 싶다.



44
 45
 2010 September
 Vol. 218

죽음은 끝이 아닌 다음을 위한 휴식기

삶과 동행하는 죽음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지금
 나의 호흡과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움과 공포가 일어나
 애써 외면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바꿔 생각해
 보면 죽음이 있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생명
 이 더욱 값진 것 아닐까?

죽음을 테마로 한 어느 박람회에서 '유서체험' 과
 '입관체험' 을 한 적이 있다. 수의를 입은 내가 저
 승사자의 손에 이끌려 관속으로 들어가고 단혀진
 관 속에서 암암히 떠오르던 내 삶의 파편들....삶과
 죽음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고, 바라볼 때 우리
 의 생활은 보다 윤택해질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인
 간은 '탄생의 문' 을 통과해서 이 세상에 나왔고
 '마침의 문' 을 열고 들어간다.

다음을 준비하기 위한 '쥬' 의 공간으로.

윤현자 성남시청 발행 <비전성남> 명예기자 취재

共通禮節

공동예절



김득중 한국전례연구원 원장

국민의례 (1)

▶ 국민의례의 목적은 다음 세 가지이다.

- ① 국가위상의 제고(國家位相 提高): 국민들이 자기나라의 격(格)과 모양새를 드높이고 갖추어 스스로 자기나라에 대한 자긍심(自矜心)을 북돋는다.
- ② 애국심의 진작(愛國心 振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스스로 부추기고 국민 간에 서로를 멀쳐서 크게 일으켜 세운다.
- ③ 국민의 결속(國民 結束): 국민 전체의 정신을 하나로 묶어 흩어지지 않게 다져서 굳건하게 단결하여 나라와 국민이 일체가 되게 한다.

▶ 국민의례의 내용과 방법은 '국가게양·관리 및 국민의례에 대한 지침(국무총리 지시 제1996-5호 1996. 3. 12)' 제3항에 다음과 같이 정해졌다.

각급 행정기관 및 산하단체 등에서 각종 의식(행사)을 거행할 때 실시하는 국민의례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하되, 앞으로 각종 의식 거행시에는 정식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가. 정식절차

- (1) 국기에 대한 경례
- (2) 애국가 제창
- (3)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그런데 못된 반국가, 비국민적인 부류들은 국민의례를 무시하고 반대해 오히려 국민의례를 비난하기 까지 한다.

그들은 ①자기나라의 위상을 내려찍고, ②애국심을 부 정하고, ③국민의 의식을 지리멸렬 시키는 데에 혈안이 되어 국격과 국가의 신망과 체제를 훼손·추락시키는 일에 광분하고 있는 것이 일부 나라들의 고민이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그래서 안 되겠기에 이번에는 국민의례 예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 국기(國旗)에 대한 경례

가. 국기(太極旗)

국기는 나라의 상징이며 국가와 국민의 전통과 이상이 담겨 있으므로 나라에 따라 특징이 드러날 수 있도록 색갈과 모양 및 도안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太極旗)를 소중히 하고 예절을 다해 그 존엄성을 지키는 일은 우리 국가와 민족에 대한 자존심을 지키는 일과 같으며,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뚜렷한 주권자 정신으로 국가의 상징인 국기를 소중히 하고 존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기의 제작에 착오가 있어서는 아니 되며, 국기의 보존이 불경스러워서는 아니 되고, 국기의 사용이 소홀해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국기의 제작·보존·사용을 바르게 하는 것이 국기에 대한 예절의 기초라 할 것이다.

나. 국기의 모양과 의미

1) 태극기의 모양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太極旗)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에 홍색과 청색으로 그린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의 4괘(四卦)를 흑색으로 그리고, 금색 깃봉은 무궁화 봉오리 모습으로 구성되었다.

2) 태극기의 의미

- ① 흰색의 기폭(口) | 평화의 정신
- ② 태극의 원(○) | 단일 · 통일의 정신
- ③ 양(陽)과 음(陰)의 태극 문양(☯) | 창조 · 무궁 · 조화의 정신
- ④ 건(乾, ☰, 하늘, 햇볕) · 곤(坤, ☷, 땅, 그늘) · 감(坎, ☵, 달, 물) · 리(離, ☲, 해, 불) | 삼라만상 (森羅萬象, 모든 것) · 형평의 정신을 상징함 (1999년판 정부 의전편람 3쪽 태극기의 뜻)

3) 국기[太極旗]의 역사

(1) 언제부터인가 고려기(高麗旗)라는 태극을 그린 기가 전해졌는데 태극의 회전 방향이 현재의 태극기와 같았다.

(2) 1875년 9월 20일에 강화해협에 불법침입, 포격을 일으킨 일본 군함 운요호(雲揚號)에 일본국기(日章旗)가 게양된 것을 보고 국기의 존재를 알았고 관심을 갖게 되었다.

(3) 1882년 5월 22일의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 체결시에 청국(淸國)이 자기나라 황제기인 용기(龍旗)를 약간 변형하여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우리가 정서적으로 애용하던 태극문양을 백색바탕에 홍색과 청색으로 그린 태극도형기(太極圖形旗)를 임시국기로 사용하였다.

(4) 1882년 8월 22일에 박영효(朴泳孝)가 고종(高宗)의 특명전권대사 겸 수신사(特命全權大使 兼 修信使)로 일본에 가면서 배안에서 조미통상조약시에 사용한 태극도형기에 4괘(四卦)를 첨가한 태극기를 만들어 8월 25일부터 사용하고, 10월 3일에 본국에 보고하였다.

(5) 1883년 3월 6일에 고종의 왕명으로 태극사괘도형(太極四卦圖形)의 태극기(太極旗)를 국기로 제정 · 공포하였다.

그러나 작도방법(作圖方法)은 미정이고, 태극의 회전방향이 현재의 태극기와 반대이며 4괘도 현재와 달리 손(巽, ☴, 德) · 간(艮, ☶, 止) · 진(震, ☳, 亨通) · 리(離, ☲, 動)였다.

그 4괘가 언제부터인지 현재의 4괘, 건(乾, ☰, 하늘, 陽 · 햇볕) · 곤(坤, ☷, 땅, 陰 · 그늘) · 감(坎, ☵, 달, 물) · 리(離, ☲, 해, 불)로 변화하여 그려졌다.

이 태극기가 3.1운동, 상해임시정부, 독립투쟁, 해방후, 1948년 8월 15일의 대한민국

국 정부수립 때까지 사용되었다.

(6) 1949년 1월 4일에 문교부에 42명의 '대한민국 국기 시정위원회(大韓民國 國旗 是正委員會 委員長 李承晩)'를 설치하였다.

그 위원회에서 모두 5개 시안(試案) 중에서 현재의 태극기 도형을 채택의결(採擇議決)하였다. 이때 태극의 회전이 현재와 같이 되었다.

(7) 1949년 10월 15일에 비로소 문교부 고시 제2호로 '국기제작법(國旗製作法)'이 공포되었다.

(8) 1998년 12월 28일에 대통령령 제15948호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이 공포되었고,

(9) 2007년 1월 26일에 법률 제8272호로 '대한민국국기법'이 제정되고, 그해 7월 27일에 시행되었다.

• 태극도형(太極圖形)의 시작

현재의 태극도형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그렸다. 동양의 고전 주역(古典 周易)의 음양(陰陽)논리를 도형화(圖形化)한 것인바 원래 음양의 성쇠교체(盛衰交替)논리만 전개된 것을 682년(新羅 慶州 感恩寺 長臺石 重太極圖)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양태극(兩太極)을 포개서 도형화 하였고(이 보다 1·2세기 전의 신라 金製嵌裝寶劍-국가보물 635호-에는 3太極圖가 그려졌음), 중국에서는 그 388년뒤인 1070년에야 주렴계(周濂溪)가 현재는 통용되지도 않는 태극도(太極圖)를 그렸다.

현재의 양태극도(兩太極圖)는 1144년 고려 허재(高麗 許載)의 관 덮개돌(棺蓋石)에 새겨진 것이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그려졌다.

• 음양(陰陽)의 상징색(象徵色)

음양의 상징색을 중국에서는 양현음훈(陽玄陰纁)이라 하여 양과 음으로 상징되는 하늘은 가물가물하고 땅은 분홍빛(天玄地纁)을 인용한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양과 음의 본체인 햇볕과 그늘(陽-햇볕, 陰-그늘)의 원색을 따라서 양(陽)은 홍(紅, 해의 색깔)이고, 음(陰)은 청(靑, 그늘진 산의 북쪽 색깔)으로 그려서 태극의 색이 양홍음청(陽紅陰靑)으로 그려졌다.

중국은 상징되는 것으로 간접색(間接色)을 말하고 우리나라는 양과 음 본체의 직접색(直接色)을 말한다. 그래서 태극의 색깔이 양홍음청이다.

일부 사람들이 이 음양의 상징색을 이해하지 못하고 중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양청음홍(陽靑陰紅, 중국에서는 陽玄陰纁이다)을 주장하여 혼란을 주고 있어 안타깝다.

우리가 태극기를 양홍 음청(陽紅 陰靑)으로 그리는 것을 바꾸지 않는 한은 예서(禮

書)에 전혀 근거가 없는 양청음홍(陽靑陰紅)을 주장하거나 상징색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기부정(自己否定)이다.

우리는 국기에서 상징색으로 쓰는 양홍음청(陽紅陰靑)이어야 합리적이다.

다.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방법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3조)

국민이라면 자기 나라의 상징인 국기를 대할 때마다 조국에 대한 충성의 다짐을 해야 할 것이고, 무한한 경의를 표해야 할 것이다.

1) '국기에 대한 맹세' 문

국기를 게양·강하 하거나 각종 의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한다.

맹세방법은 개별적으로 국기를 대할 때는 각자가 마음속으로 엄숙·경건하게 맹세하고, 일정한 의식행사에서는 대표 또는 지정된 사람이 참석자 모두가 알아듣도록 큰소리로 낭송한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방법

① 제복(制服)이 아닌 평상복을 입은 사람은 국기를 향해 바른 자세로 서서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注目)해 그윽하게 바라본다.

② 제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은 사람이 모자를 썼을 때는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모자의 안쪽을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다만, 모자를 썼더라도 벗기가 곤란한 모자(예: 갓 등)인 때는 모자를 벗지 아니하고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경례한다.

③ 군인, 경찰관, 교도관, 보이스카웃, 기타 제식화(制式化)된 복장을 입은 사람은 거수(擧手)경례를 하고 국기를 주목한다.

④ 국기가 자기의 앞을 통과할 때는 국기를 향해 부동자세로 서서 위 각 항과 같은 방법으로 경례한다.

라. 국기의 제작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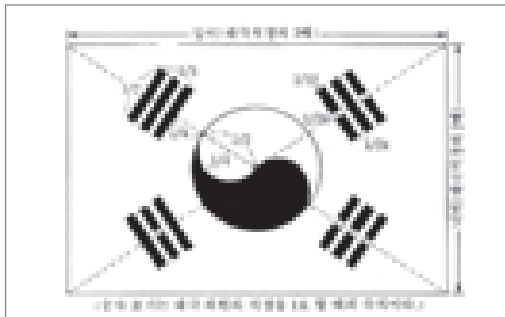
국기의 존엄성과 국기에 대한 예절은 국기를 바르게 만드는 데서 출발한다. 국기를 바르게 만들지 못하고 엉뚱한 형태와 도식의 국기에 경의를 표한다면 국기에 대한 가장 큰 모독이라 할 것이다.

1) 깃면(旗面·기폭)의 제작

(1) 깃면의 도식(圖式)은 다음그림과 같이 그린다.

- ① 깃면의 도식비율(比率)은 태극 원을 1로 할 때 기폭의 너비를 2로하고 길이를 3으로 한다.
- ② 태극원의 위치는 기폭의 좌상(左上)귀와 우하(右下)귀를 잇는 대각선과 우상(右上)귀와 좌하(左下)귀를 잇는 대각선이 교차하는 기폭의 중앙을 중심으로 기폭 너비의 1/2을 직경으로 하는 원을 그린다.
- ③ 태극의 음과 양의 도식은 태극 원의 내부 기폭의 좌상(左上)귀와 우하(右下)귀를 잇는 대각선에 맞추어 중심의 좌측대각선의 아래에는 태극원의 직경의 1/4을 반경으로 하는 반원을 그리고, 중심의 우측 대각선의 위에도 같은 반원을 그린 다음, 위쪽 양(陽)은 홍색으로 칠하고 아래쪽 음(陰)은 청색으로 칠한다.
- ④ 네 괘의 도식은 네 귀를 잇는 대각선의 태극 외원에서 태극 직경의 1/4을 띄운 자리에 태극 직경의 1/2과 1/3을 변으로 하는 장방형에 맞게 좌상(左上)에 건(☰)괘, 우하(右下)에 곤(☷)괘, 우상(右上) 감(☶)괘, 좌하(左下)에 리(☲)괘를 그리고 검게 칠한다.

깃면의 도식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숫자 표기는 태극 외원의 직경을 1로 할 때의 수치이다.)



25-1 태극기 깃면

(2) 깃면의 색깔은 기폭은 흰(白)색으로 하고, 태극의 윗부분(陽)은 빨강(眞紅)색이며, 태극의 아랫부분(陰)은 파랑(雅靑)색으로 하고, 괘는 검정(黑)색으로 한다.

다만, 인쇄물 등에 원 색깔을 인쇄할 수 없을 때는 깃면의 외곽과 태극 원의 외곽선과 파랑색 및 검정색의 부분을 색깔로 인쇄하고 기타 부분은 인쇄용지의 바탕색으로 둔다. 그러나 외국인에게 열람 제공할 목적으로 인쇄할 때는 원 색깔로 표시하여야 한다.

(3) 태극기 기폭의 가(邊)에 술(금·은술)을 달 수 있는 경우는 다음에 한 하되, 술의 길이는 기폭너비의 1/7~1/8로 하고 깃대에 닿는 부분에는 술을 달지 않는다.

- ①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의 승용차에 다는 국기
- ② 의전(儀典)용으로 쓰이는 국기
- ③ 실내에 게양하는 국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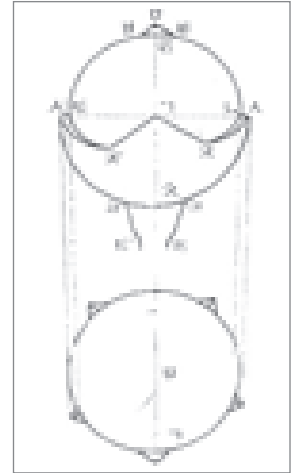
2) 깃봉의 제작

(1) 깃봉은 아랫부분에 꽃받침 5잎이 있는 둥근 모양에 가까운 무궁화 봉우리 형태로

하고, 그 색 깔은 전부 황금(黃金)색으로 한다.

(2) 깃봉의 모양과 크기 비율을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수치는 태극 직경을 1로 할 때의 비율임)

- ① L-ㄷ (깃봉의 지름) 1/5
- ② ㄱ-L : ㄱ-ㄹ을 7:8로 하여 L · ㄹ · ㄷ이 반 타원을 이룬다.
- ③ ㄹ-ㄱ과 ㄹ-ㄷ은 각기 ㄱ-ㄹ의 1/8
- ④ 꽃받침 첨단의 부피는 각기 ㄱ-L의 1/10
- ⑤ ㄱ을 중심으로 하여 ㅅ · ㅈ · ㅈ' · ㅅ'의 반원을 그려 꽃받침을 이룬다.
- ⑥ W은 ㄱ-ㅈ, ㄱ-ㅅ의 각 중간점에서 수평 · 수직된 선의 교차점이다.
- ⑦ ㅈ-ㄱ은 ㄱ-L의 1/3
- ⑧ ㄱ-ㅈ은 ㄱ-L의 2/5



25-2 깃봉의 모양과 크기비율

3) 깃대의 제작

- ① 깃대를 만드는 재질은 대나무 · 쇠등 견고한 것으로 하며, 색깔은 대나무 색이나 그에 유사한 색깔로 한다.
- ② 깃대의 길이는 깃면 너비의 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 깃대를 2개 이상 설치 할 때 깃대와 깃대의 간격은 게양할 깃면의 길이보다 넓어야 한다.

4) 국기의 용도별 규격

국기의 크기는 용도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한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깃면의 길이와 너비의 비율을 3:2로 해서 달리 제작 할 수 있다.

호 수	깃면규격 길이×너비 _{cm}	깃봉직경	깃대 길이	용 도
특 호	540×360			
1호	450×300	20 _{cm} 이상		건물의 옥상 또는 전면
2호	306×204		지상깃대: 10m 이상 옥상깃대: 7 m 이상	지상에 고정적으로 설치된 게양대용
3호	270×180	18 _{cm}		
4호	225×150	14 _{cm}		
5호	180×120	10 _{cm}	지상깃대: 5m 이상	일반기증에 고정적으로
6호	153×102	7 _{cm}	옥상깃대: 3.5m 이상	설치된 게양대용
7호	135×90	6 _{cm}	2.5m 이상	일반가정의 조립식 (이동식)깃대용
8호	90×60			실내 게시용
9호	45×30			
10호	27×18	2 _{cm}	35 _{cm} 이상	수기용

다만 국기의 깃면을 길게 늘여서 현수한 때의 깃면의 길이와 너비의 비율은 3:2에 관계없이

늘어뜨리는 아랫부분의 흰색 면을 필요한 만큼 길게 할 수 있다.

마. 국기 게양일과 시간

1) 국기 게양일

(1) 전국적으로 모든 건물과 가정에서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과 같다.

① 경축(慶祝)하는 날(국경일에 관한 법률)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② 조의(弔意)를 표하는 날(조기게양일, 弔旗掲揚日)

1. 현충일 (6월 6일)
2. 국장기간 (國葬期間, 수시 결정 됨)
3. 국민장일 (國民葬日, 수시 결정 됨)

③ 기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정하는 날(당해 지방자치단체에 한함)

(2) 연중(年中) 계속해서 국기를 게양해야 하는 곳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청사
- ② 각급학교와 사회교육기관
- ③ 다음의 장소에는 가급적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공항·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대형건물·공원 등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곳,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기타 많은 게양대가 함께 설치된 곳

(3) 수시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① 각종 행사장
- ② 각종 회의장
- ③ 기타 다수 국민이 동일 목적으로 모이는 장소

2) 국기게양 및 강하시간

(1) 국기는 비 또는 눈이 오지 않는 날의 낮에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국기는 비 또는 눈이 오거나 다시 개거나 하는 등 일기 변동에 따라 수시로 강하하고 게양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행사로 인하여 일기 변화에 따를 수 없는 때는 그렇지 않다.

(3) 국기의 게양 및 하강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정한 시각은 다음과 같다.

- ① 국기는 24시간 게양할 수 있으며, 야간에 그 게양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급적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② 다만,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계양대는 교육적인 목적을 고려, 낮에만 계양한다.
국기를 낮에만 계양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시간을 지킨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아침 7시에 계양하고 오후 6시에 강하한다.

2.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는 아침 7시에 계양하고 오후 5시에 강하한다.

3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계양 및 하강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

-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가 훼손되어 그 존엄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계양하지 않을 수 있다.
- 재외공관의 국기 계양과 강하시간은 주재국의 관례에 따른다.
- 기타 수시 임의로 행하는 행사, 집회, 회의 등의 경우

3) 국기 계양식과 강하식

① 연중 국기를 계양하는 경우는, 계양 시에는 계양식(揚揚式), 강하 시에는 강하식(降下式)을 거행하여야 한다.

② 국기의 계양식과 강하식에는 애국가의 주악에 맞추어 거행하되 주악의 소리를 건물 내 외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일기 변동으로 정한 시간이 아닌 때에 강하할 때는 애국가 연주를 생략 한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애국가 연주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국기의 계양 및 강하의 소요시간을 애국가 연주시간과 일치되게 하여야 한다.

④ 국기와 외국 기 또는 다른 기를 함께 계양할 때는 동시에 계양하거나 국기를 먼저 계양하고 외국 기나 다른 기를 나중에 계양한다.

하강할 때도 동시에 하거나 외국기 또는 다른 기를 먼저 하강 하고 다음에 국기를 하강한다.

⑤ 국기의 계양식 및 강하식에는 다음과 같이 경의를 표시하되 체육대회 등 준비·진행 중인 사람이나 애국가 연주가 생략되어 국기를 볼 수 없는 사람은 경의 표시를 생략 할 수있다.

- 국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국기를 향하여 경례를 한다.
- 국기는 보이지 않고 애국가 연주만 들리는 경우는 그 방향을 향하여 바른 자세를 취해 서서 움직이지 않는다.
-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은 국기 방향을 향해 일어서 바른 자세로 움직이지 않는다.
- 계양식 또는 강하식 장소의 울타리 안의 정지된 차량에 타고 있는 사람은 차에 앉은채로 부동의 자세를 취한다.

바. 국기 계양방법

1) 국기의 아래와 위

① 국기를 깃대에 달 때와 가로로 벽면 등에 게시할 때는 건(≡)괘와 리(≡)괘가 깃대 또는 국기를 보는 사람의 왼쪽에 가고, 건(≡)괘와 감(≡)괘가 위로 가게 깃대에 달거나 벽면에 게시한다.

② 국기를 세로로 현수할 때는 건(≡)괘와 감(≡)괘가 국기를 전면에서 보는 사람의 오른쪽이

되고 건(≡)괘와 리(≡)괘가 위로 가게 현수하거나 게시 한다.

2) 깃대에 다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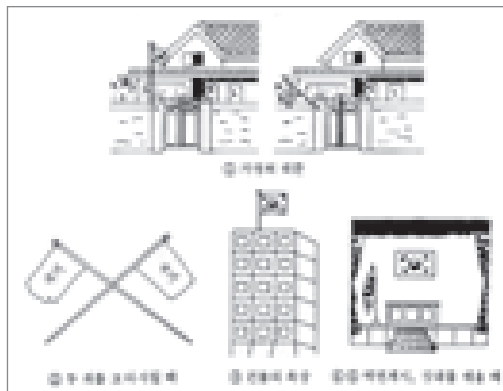
- ① 경축일과 평상시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띄우지 않고 붙인다.
- ②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 등의 날에는 깃봉과 깃면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띄운다.
- ③ 국기를 현수할 때는 아랫부분의 흰 면을 필요한 만큼 길게 제작할 수 있다.

3) 국기를 게양하는 위치

- ① 일반가정의 대문에는 집 밖에서 보아 왼쪽에 게양한다.
- ② 국기 두 개를 교차시킬 때는 집 밖에서 보아 왼쪽으로 가는 깃면을 단 깃대가 바깥쪽이 게 교차시킨다.
- ③ 건물의 옥상에는 중앙에 게양한다.
- ④ 사무실에 국기를 게시 할 때는 상좌의 벽면 중앙에 게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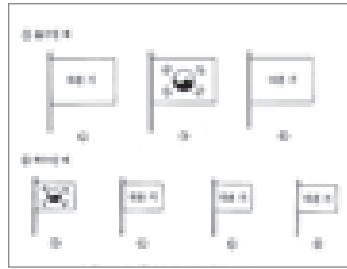
25-3 깃대에 다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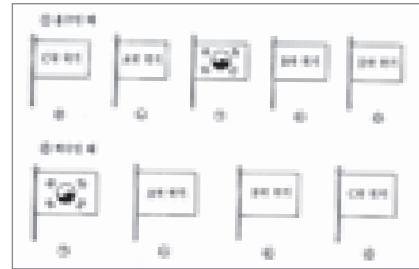
25-4 국기를 게양하는 위치

- ⑤ 깃대에 달아서 회의장 · 강당 · 사무실 등에 세울 때는 상좌의 중앙이나 상좌의 우측, 즉 앞에서 보아 좌측에 세운다.
- ⑥ 차량에 국기를 꽂을 때는 차 앞에서 보아 왼쪽에 꽂아 세운다.
- ⑦ 국기와 외국기나 다른 기를 함께 게양하는 경우는 모든 기가 홀수인 때는 국기를 중앙에 게

양하고, 짝수일 때는 앞에서 보아 왼쪽에 국기를 게양한다.



25-5 국기와 다른 기를 함께 게양 할 경우



25-6 국기와 외국기를 함께 게양 할 경우

⑧ 국기와 외국기를 함께 게양할 때에 모든 국기가 홀수인 때는 국기를 중앙에 게양하고 외국기는 그 나라 국호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 순서대로 게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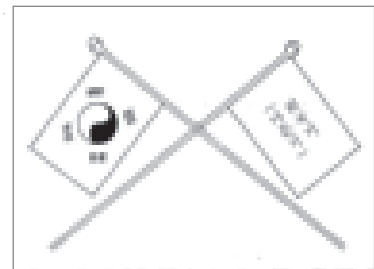
짝수인 때는 앞에서 보아 왼쪽에 국기를 게양하고 외국기는 국호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 게양한다.

⑨ 국기와 국제연합기 및 외국기를 함께 게양할 때는 국제연합기를 가장 윗위치에, 국기를 다음 위치에 게양한다.

⑩ 국기와 외국기를 또는 다른 기를 교차시킬 때는 국기가 앞에서 보아 왼쪽이 되게 하며 국기의 깃대가 밖으로 되게 교차시킨다.



25-7 국기와 국제연합기 및 외국기를 함께 게양 할 때



25-8 국기와 외국기 또는 다른 기를 교차시킬 때

사. 국기에 대한 일반예절

① 국기는 깨끗한 함에 넣어 사무실, 가정의 상좌(上座)이며 깨끗한 곳에 보존한다.

② 국기가 퇴색했거나 부득이하게 더럽혀졌거나 혈었을 때는 반드시 소각해야지 다른 용도로 써서는 아니된다.

③ 특수한 경우에 국기로 시체 또는 영구를 덮을 때는 시체의 우상(右上)에 깃면의 건(≡)괘가 닿도록 덮으며, 국기가 땅에 닿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④ 국기를 시체·유골과 함께 매장해서는 아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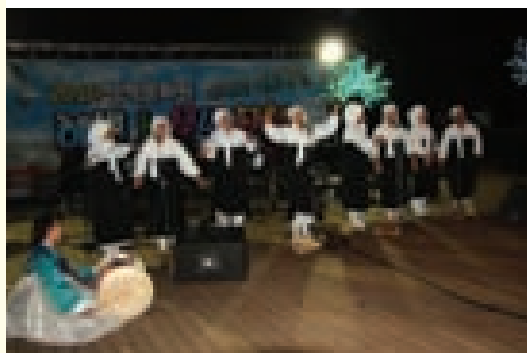
⑤ 국기를 게양하거나 강하할 때도 땅에 닿지 않도록 주의 한다.

문화원이모저모
NEWS

삼척문화원

2010 삼척문화원

해변 소문난 잔치 개최



삼척문화원(원장 장세훈)은 피서 절정기를 맞아 피서객들에게 유쾌하고 추억에 남는 피서가 될 수 있도록 2010 삼척문화원 해변 소문난 잔치를 개최했다.

2010년 8월 5일 저녁 7시에 삼척해수욕장 백사장에 만들어 놓은 삼척사랑공원에서 삼척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들과 삼척지역 투투색소폰 동호회의 합동 공연으로 무더운 날씨 속에 삼척해변에 아름다운 선율을 울려 퍼지게 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삼척문화원 너른마당 풍물패의 길놀이로 시작으로 해변 소문난 잔치의 서막을 알렸으며 시니어밴드의 공연, 여름날 아름다운 우리의 소리를 들려준 국악공연, 천상의 하모니를 자랑한 음악교실의 공연과 시원한 사물놀이 공연 등 여름 해수욕장에서 500여명의 관람객에게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추억을 선사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여름 해변에서 공연을 했지만, 매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연을 할 예정이다.

문경문화원

근대 문경새재에서 퍼져나간 아리랑, 재조명 세 번째 열린 '2010 문경새재 아리랑제'

문경문화원(원장 현한근)은 8월 7일 문경새재 야외공연장에서 신한국 문경시장, 고오환 문경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내빈과 시민, 관광객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재 길, 새재 소리'라는 주제로 '2010 문경새재아리랑제'를 개최했다.

이 제전은 근대에 문경새재에서 퍼져나간 '아리랑'을 재조명하고, 새로운 문경

새재아리랑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여는 마당에서는 아리랑 소개 및 노래 배우기 순서가 마련됐고, 어르신들이 부르는 청춘가, 외국인이 부르는 문경새재 아리랑도 선보였다. 제1부 '문경새재가 왜 고갯길'에서는 일상의 고개 상실의 고개라는 무대를 설정하고, 민족의 아픔과 저항 그리고 환희를 노래한 아리랑을 역사적 사건 속에 담아 다듬이질 소리, 그리운 아리랑(장사의 노래), 논노래, 일노래, 정선아리랑, 문경새재아리랑,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으로 표현했다. 중간에 경북대학교 김기현 교수가 문경새재아리랑의 탄생과 전승에 대하여 해설을 하여, 관람객들이 더 깊이 이 행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제2부 '고개 넘어' 순서에서는 희망의 고개 환희의 고개라는 무대 속에, 춤과 연주로 꾸며지는 아리랑 퍼레이드와 민족의 노래인 아리랑을 시대 변천에 의해 희망과 사랑, 환희로 전이시켜 대동의 노래로 만든 소리 퍼포먼스, 환희와 대동의 노래, 아픔과 저항의 노래 등을 4대 아리랑 재즈풍 메들리 연주 및 춤, 아리랑목동, 나를 두고 아리랑, 신아리랑, 강원도아리랑, 홀로아리랑, 문경아리랑(째즈풍 연주), 꿈의 아리랑(독창, 비보이), 본조아리랑(합창)으로 표현하도록 했다. 문경새재아리랑은 문경지역의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불러오다 그 어르신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잊혀지고 있었으나, 1993년 송영철울(사망)로부터 송옥자 문경새재아리랑보존회 회장이 전수받아 맥을 이어오고 있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이다.

어르신 생활문화 전승 프로그램

마고할매의 꿀떡고개 이야기

문경문화원(원장 현한근)은 고모산성의 전설과 신현리 마을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접목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창출하고, 어르신들이 보유했던 생애 이야기와 그들이 간직한 음식문화 등을 발굴하기 위해 '어르신생활문화전승프로그램-마고할매의 꿀떡고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문화원연합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주최하는 이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8개 문화원이 각각 공모를 통해 주관하고 있으며, 각 문화원의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주제를 가지고 수행하고 있는 어르신 대상 문화프로그램으로써, 경북에서는 문경문화원만이 진행하고 있다.



문경문화원은 어르신생애이야기를 발굴하여, 문화 책자, 문화 지도, 문화 팸말 등을 제작하고, 전시 발표할 예정이며, 마을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 놀이 등을 찾아 지역문화콘텐츠로 개발, 감성여행에 대응하는 관광자원으로도 발굴하고, 마을잔치도 열 예정이다. 문경시 마성면 신흥리는 옛 마성면소재지로써 지역 농촌 소도읍의 근대문화를 잘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탄광촌에 인접하여 문경시의 번성과 쇠락의 단면을 간직하고 있는 마을이기도 하다. 또한, 삼국시대 문화유산인 고모산성과 고분들이 있는 마을이며, 천년의 발자국으로 일컬어지는 토끼비리와 이에 인접한 성황당, 꿀떡고개 등 많은 이야기와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어 있는 마을이며, 영남제일경인 '진남교반'의 빼어난 자연유산이 있는 마을이기도 하다.

현한근 원장은 '신흥리 마을은 그 자체로 문화적 가치가 높은 마을이며, 이런 마을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접목된다면 새롭고 훌륭한 문화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국비 예산을 유치해 온 만큼, 마을 어르신들과 마을의 뜻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동래문화원

청소년 동래향토사교실
제3기 문화탐방 및 수료식



동래문화원(원장 성원주)은 7월 24일 2010년 청소년 동래향토사교실의 동래지역 설화, 인물, 사건 등의 이론 수업을 끝내고, 마지막 과정으로 문화재인 동래부 동헌, 충렬사, 박차정 의사 생가, 동래 읍성지, 장영실 과학동산, 동래읍성역사관 등으로 문화탐방을 다녀왔으며, 동래읍성역사관에서 3기 생들의 수료식도 가졌다.

성남문화원

둔촌 이야기 자리(여섯 번째) -
유두날, 계음(契飲)놀이

성남문화원(원장 한춘섭)은 지난 7월 26일, 경기도 기념물 제219호로 지정된, 성남의 큰 어른, 둔촌 이 집(李集, 1327~1387) 선생의 호행과 충절심을 기리는 둔촌 이야기 자리 여섯 번째, '계음(契飲)놀이' 행사를 둔촌 사당 '추모재'에서 개최했다. 축하공연으로 이영순(성남무용협회 부지부장)의 무용 '살풀이'와 이길영(성남시립국악단 수석 단원)의 피리독주 '성령산, 칠갑산, 만남'에 이어, 둔촌 작시, '6월 보름날 포은에게 드린다, 회포를 적는다.' 2수를 김정진 사무국장이, 2010 둔촌 청소년백일장 장원 손태련 작시, '술길'과 2010 둔촌 중국백일장 장원 리예림 작시, '둔촌 할아버지'를 이보영 총무과장이 낭송했으며, 축가로 성남시립합창단의 김정은(소프라노)이 한춘섭 작 '큰 기침소리'를, 석종국(테너)과 안효영(바리톤)이 한춘섭 작 '탄현 연가'를 불렀다. 마지막 순서로 문수진(신구대 명예교수)의 '둔촌선생과 고려 말의 정세' 특별강연 순으로 이어졌다.

〈둔촌 이야기 자리〉는 매년 봄, 여름, 가을, 겨울 음력 보름을 기해 총 4회씩 개최되며 시낭송, 공연, 토론회와 더불어 지역 주민을 위한 음악회 등 더욱 풍성한 문화행사와 함께 찾아갈 예정이다.

광복절 성남 경축식
우리 선조들의 '애국정신' 계승



문 화 원 이 모 자 모 NEWS

광복회 성남시지회(지회장 이용위)와 성남문화원은 광복절 제65주년을 맞이하여, 일제의 침탈로 잃었던 국권을 되찾으려 했던 우리 선조들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고자, 우리 고장 〈광복절 성남 경축식〉을 지난 8월 15일 오전 10시, 성남시 청 1층 대강당 온누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성남시장 및 애국지사, 광복회원, 주요인사, 각계 대표, 시민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으며, 식전 공연과 국민의례에 이어 한동익 성남세거문중협의회장의 '경과보고'와 이용위 광복회성남시지회장의 '기념사', 이재명 성남시장과 장대훈 성남시의회의장의 '경축사', 한춘섭 성남문화원장의 축시 '억조창생, 결의여! 낭송에 이어 성남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광복절 노래' 제창과 시립국악단의 관현악 '아리랑' 축하공연, 남기형 광복회 이사의 '한세삼창'을 끝으로 성황리에 치러졌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경축사에서 "역사를 모르고는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으며, 또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우리 선열께서 보여주신 나라사랑의 정신과, 잃어버린 영토와 주권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의무감과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제15회, 학술회의 "일제하 성남(광주)지역 신간회 연구"



성남문화원은 '일제하 성남(광주)지역 신간회 연구'를 대주제로 한 제15회 학술회의를 광복절인 8, 15(일) 오후 2시, 〈성남아트센터 컨퍼런스 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1927년 일제하 당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단체들이 항일투쟁에서 민족 단일 전선을 펼 목적으로 조직된 신간회 광주시회의의 활동상을 재조명해보는 자리로, 이만열 前 국사편찬위원장이 '신간회 활동의 역사적 의의'란 주제로 기초발표, 김인식 중앙대 교수가 '신간회와 민족협동전선운동', 조성운 동국대 교수가 '일제하 광주(성남)지역 신간회 지회 조직과 활동', 성주현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일제하 성남(광주)지역 신간회의 인물들'을 각각 주제발표 했다.

이어서 윤대식 한국외국어대 교수, 윤종준 성남향토문화연구소 상임연구위원, 문수진 신구대 명예교수, 한동익 경기향토문화연구소장 등이 패널로 참가해 열

띤 종합토론을 벌였다. 이날 한춘섭 성남문화원 원장은 "1927년 일제하 당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의 대립을 막고 항일투쟁에서 민족 단일 전선을 펼 목적으로 조직된 민족운동단체 신간회 광주시회의의 활동상을 통하여 사회통합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는 오늘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재조명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천문화원

제7대 이만구 원장 취임_“찬란하고 역동적인
포천문화원의 새 역사를 장식하겠다.”



포천문화원은 8월 17일 오전 10시 30분, 포천시 여성회관 청성홀에서 내?외빈 등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대 이만구 원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취임식에는 서장원 포천시장, 김영우 국회의원, 김종천 포천시의회의장, 오처성 전 내부부장관을 비롯해, 최중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 오용원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장,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장, 친지, 동료, 문화원 회원 등 약 3백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만구 원장은 취임사에서 "중요한 국가적 목표인 나라의 품격을 높이고 국가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원대한 책무는 정부의 강력한 문화정책과 더불어 민간 차원에서는 우리 지방문화원이 앞장을 서야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우리 지방문화원 회원들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문화적 성숙도를 높이고, 시민의식을 선진화 시키며, 도덕과 법규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때 우리의 국격은 높아질 것이요, 우리는 드디어 문화 선진국 대열에 올라 세계 여러 나라의 선망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다시 한 단원을 시작하는 엄숙한 시점에 서 있는 우리 모두는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자새와 미음기짐으로 찬란하고 역동적인 포천문화원의 이름다운 새 역사를 장식하는 대열에 모두 함께 나서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날 서장원 포천시장, 김영우 국회의원, 김종천 포천시의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문화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포천에 지역문화의 저변 확대에 힘쓰는 포천문화원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하고, "포천문화원의 오랜 숙원인 포천문화원사 건립은 시장 임기 중에 꼭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해 문화원 회원들을 비롯한 내빈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제3차 이사회 개최



한국문화원연합회는 2010년 8월 12일(목) 오전 11시에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제3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제1호 의안 2010문화원의 날 행사 개최의 건, 제2호 의안 지방문화원 회원관리규정(안), 제3호 의안 지방문화원 사회교육 문화강좌 운영관리 규정(안)을 심의했다. 제1호 의안에서는 2010년도 문화원의 날 행사 (10. 8) 개최시 문화부 및 외부 전문가의 문화원 평가시스템을 통해 선정된 우수문화원 시상(대상, 우수문화원 등 16개 부문) 계획이 논의되었다.

제2호 의안에서는 지방문화원 위상 제고를 위한 회원 확대 및 임원 선임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지방문화원 회원 관리규정을 심의, 의결하였다. 제3호 의안 심의에서는 지방문화원의 주요 사업인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반 규정을 심의 의결하였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최종수 회장 동정

- 2010. 8. 9 논산문화원장 이취임식 참석
 이임 : 박응진 원장, 취임 : 류제협 원장
- 2010. 8. 14 영등포아트홀에서 다문화프로그램
 〈러브 인 아시아〉 공연 관람
- 2010. 8. 17 포천문화원 이만구 원장(연임) 취임식 참석
- 2010. 8. 22 부산 동래문화원 다문화 공연 〈러브 인 아시아〉 관람

문화원 소식

한국문화원연합회 대전광역시지회 사무실 이전

변경전 | 대전 중구 대흥동 448(대전 중구문화원 내)
변경후 | (우) 302-859 대전 서구 탄방동 667 (대전 서구문화원 4층)
전화 | 042-824-7517 팩스 | 042-824-7518

울산광역시 지회 사무처장 장태호

부산대 예술경영과 영상매체 과정 석사
울산 고래축제 감독 겸 사무국장 역임
부산예술대학 이벤트 연출과 출강 임용일자 | 2010. 8. 10

부산 수영문화원 사무국장 심재원

부산지방 공무원(31년 7월)
부산 수영구청 사무관(9년 6월) 임용일자 | 2010. 8. 1

충북 충주문화원 사무국장 노광호

전 중부매일신문, 충북일보 기자 임용일자 | 2010. 8. 1

강원 태백문화원 사무국장 장화은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임용일자 | 2010. 8. 13

충남 온양문화원 사무국장 박순동

프라임에셋 아산지사장
프렌치코스메틱 대표 임용일자 | 2010. 8. 13

원 장 등 정 NEWS

신임 원장



울산광역시지회 제4대 지회장 윤성태(尹聖泰)

울산광역시 울주문화원 사무국장 역임
전국문화원연합회 울산광역시지회 초대 사무처장 역임
현 울산시 남구문화원장
울산광역시 문화관광분야 정책자문위원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회 위원



봉화문화원장 이정수(李貞洙)

교육행정직 공무원 33년
봉화군립도서관장
봉화군학예관장



서울 동작문화원장 이윤선(李允善)

전 동작문화원 사무국장
전 동작구 민주평통자문위원
전 동작문화원 부원장
동작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소장



광주서구문화원장 강 만

시인, 화가(67세)
전 송정중학교 교장
중등교사 40년 근무
황조근정훈장, 시문학공로상 등 수상
광주비엔날레 홍보위원



경주문화원장 손원조

KBS대구방송국 경주담당기자
영남일보 경주담당기자
경주문화원 부원장
서라벌신문사 발행인 겸 편집인

퇴임 원장



제3대 동작문화원장 강희일(姜熙一)

동작구의회 2,3 4대 의원(4대 의장)
학교법인 구봉학원 이사
상도1, 5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봉화문화원장 권정환(權鼎煥)

지방공무원
봉화문화원사무국장
봉화문화원 원장



경주문화원장 오해보

경상북도 성주군수
상북도 보건환경국장
경주시 부시장



광주서구문화원장 김 종

중앙일보 신춘문에 시 당선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광주광역시문인협회장, 국제펜클럽 광주위원회장
시인, 화가, 현 한국문화원연합회 광주지회장

지역문화를 위해
헌신하신 뒷모습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韓國秋史書藝大展

제 7 회 한국추사서에대전

접수기간 **2010년 9월 27일 ~ 29일**

(18:00까지, 우편접수시 29일 도착분에 한함)

공모부문 한문, 한글, 문인화, 추사체, 전각

전시기간 **2010년 11월 16일 ~ 22일**

(시상식 11월 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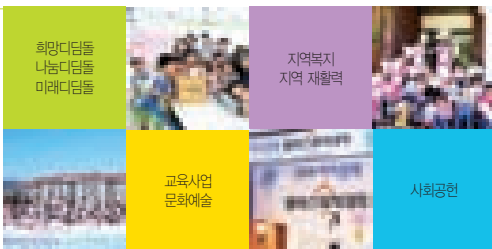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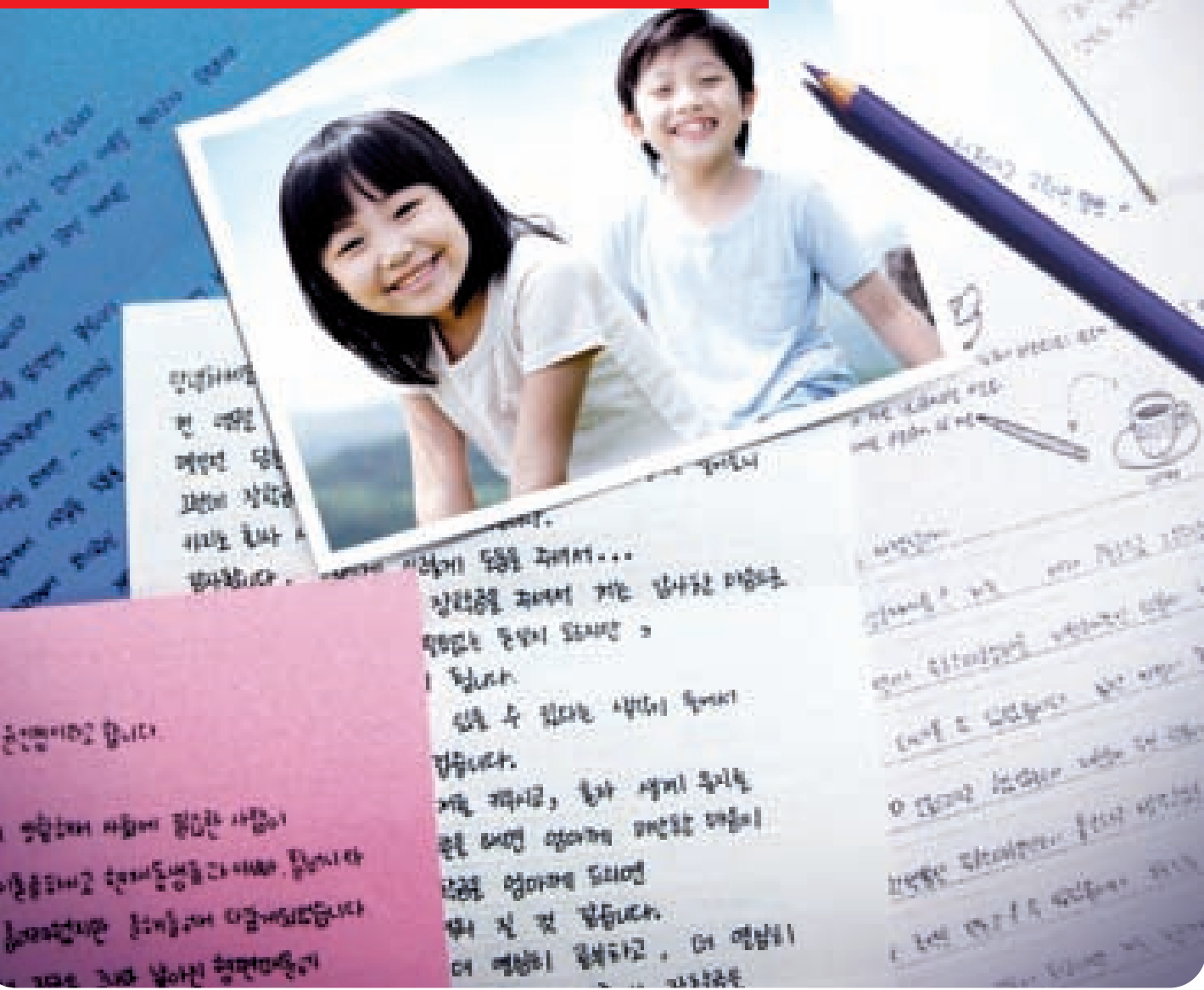
전시장소 과천시민회관 전시실 및 다목적홀

사상 대 상 - 1명(상금 1,000만원)
최우수 - 1명(상금 500만원)
우수상 - 4명(상금 각 100만원)
특별상 - 8명(상금 각 50만원)
특 선 - 50명(상금 각 10만원)
입 선 - 다수

문의 02-504-6514
www.gccc.or.kr

1994년~현재 경기도, 과천시, 과천시민회관 후원
주최: 과천시, 후원: 과천시민회관, 과천시민회관 후원회

하이원리조트가 우리 소중한 꿈나무들과 함께 희망을 열고 있습니다



폐광지역의 아이들에게 똑같은 교육의 기회를 만들어 주고,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소년 소녀 가장으로 살아가는 청소년을 돕기 위해,
하이원은 행복디딤돌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희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강원도 폐광지역은 정선 태백 영월 삼척에 걸쳐 있으며 과거 주요한 에너지
생산지였으며, 현재는 강원도를 대표하는 관광메카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